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유생성이 중학생의 영어 연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2008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이 윤 경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유생성이 중학생의 영어 연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은 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이 윤 경

이윤경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8년 8월 27일



주 심 영어학박사 전 춘 배 (인)

위 원 영어학박사 배 재 덕 (인)

위 원 언어학박사 김 은 일 (인)

# 목 차

I. 서론 .....	1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1.2 연구과제 .....	4
II. 이론적 배경 .....	5
2.1 연어 .....	5
2.1.1 연어의 정의 .....	5
2.1.2 연어의 의미 .....	6
2.2 유생성 .....	7
2.2.1 유생성이란? .....	7
2.2.2 유생성의 차이에 따른 한·영 구조 비교 .....	8
2.2.3 유생성부호화의 원리 .....	18
III. 연구 방법 .....	22
3.1 실험대상 .....	22
3.2 실험설계 .....	22
3.2.1 실험대상 어휘선정 .....	22
3.2.2 실험문항 설계 .....	29
3.2.3 실험도구 및 절차 .....	32
IV. 결과분석 및 논의 .....	35

4.1 전체 결과 .....	35
4.1.1 유생성 동일부호화와 상이부호화 문항 집단 간 비교 .....	35
4.1.2 유표(marked)문항 vs 비유표(non-marked)문항 집단 .....	38
4.2 형용사 관련 문항 .....	40
4.2.1 실험 결과 .....	40
4.2.2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 .....	42
4.2.3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 .....	45
4.3 동사 관련 문항 .....	53
4.3.1 실험 결과 .....	53
4.3.2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 .....	55
4.3.3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 .....	58
V. 결론 .....	67
참고문헌 .....	69
부록 - 실험용 문제지 .....	73

## 표 목 차

<표 1> 형태적 계층의 예 .....	9
<표 2> 어휘적 계층 중 명사의 예 .....	10
<표 3> 어휘적 계층 중 대명사의 예 .....	10
<표 4> 어휘적 계층 중 형용사의 예 .....	11
<표 5> 통사적 계층 중 형용사의 예 .....	12
<표 6> 통사적 계층 중 주어+동사의 예 (1) .....	13
<표 7> 통사적 계층 중 주어+동사의 예 (2) .....	14
<표 8> 통사적 계층 중 동사+목적어의 예 .....	15
<표 9> 통사적 계층 중 동사+간접목적어의 예 .....	16
<표 10> 통사적 계층 중 구동사+목적어의 예 .....	18
<표 11> 어휘별 문항 구성 .....	33
<표 12> 문항별 정답률 .....	36
<표 13> 문항집단 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	37
<표 14> 문항 집단 간 평균 정답률 차이의 검정 결과 .....	37
<표 15> 유효문항 집단과 비유효문항 집단의 정답률 .....	38
<표 16> 유효문항 집단과 비유효문항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 .....	39
<표 17> 문항 집단 간 정답률 평균 차이의 검정 결과 .....	40
<표 18> 형용사 문항 간 결과 비교 .....	41
<표 19> 각 집단의 형용사 문항 평균 및 표준편차 .....	41
<표 20> 문항 집단 간 평균 정답률 차이의 검정 결과 .....	41
<표 21>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 중 형용사 문항의 정답률 비교 .....	42

<표 22>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 중 형용사 문항의 정답률 순위 .....	43
<표 23>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 중 형용사 문항의 정답률 순위 .....	46
<표 24>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 중 형용사 문항의 정답률 비교 .....	47
<표 25> 동사 문항 간 결과 비교 .....	54
<표 26> 각 집단의 동사 문항 평균 및 표준편차 .....	54
<표 27> 문항 집단 간 평균 정답률 차이의 검정 결과 .....	55
<표 28>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 중 동사 문항의 정답률 비교 .....	56
<표 29>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 중 동사 문항의 정답률 순위 .....	56
<표 30>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 중 동사 문항의 정답률 순위 .....	59
<표 31>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 중 동사 문항의 정답률 비교 .....	60

## 그림 목 차

<그림 1> 의미영역의 통사적 부호화 도형 .....	19
<그림 2> 'rice'의 예 .....	20
<그림 3> 유생성 부호화의 예 .....	21

A STUDY ON ANIMACY AND STUDENTS'  
COLLOCATIONAL COMPETENCE

Lee, Yoonkyu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Many researchers have found that animacy is systematically encoded in languages different ways. Also, some studies show that the Korean structure encodes the difference in animacy while the English structure does not encode the difference. The difference in coding mechanism is systematically found in various linguistic levels such as morphology, lexicon, and syntax and also in various parts of speech such as noun, pronoun, adjective and verb.

Based on these theoretical backgrounds, this thesis investigated how different animacy coding mechanisms in English and Korean languages affect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collocational competence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petences for language learners. The subjects were a total of 95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 participants completed the questionnaire that consists of 80 questions related to animacy of adjectival predicates and verbs. The questionnaire aimed to see how well the middle school students understand the different coding systems of animacy between two languages in various contexts so that they can properly collocate the words.

The result shows that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do not clearly understand the different animacy coding mechanism between two languages and that their English collocational competence is meaningfully affected by the difference.

# I.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은 근래까지만 해도 전통적인 문법번역식 교수법이나 읽기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추어 왔었고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바뀐 것은 최근의 일이다. 예전의 전통적인 영어 교수법에서 흔히 행해졌던 기계적 암기와 연습은 이제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교실 수업에서는 영어라는 언어의 특성을 관통하는 커다란 줄기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영어라는 언어가 왜 한국어와 다른 쓰임새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 학습자들이 적절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중등학교에서 영어 어휘 학습 지도는 주로 개별 단어에 대한 의미를 한국어와 일대일 등치(paired-translational equivalent)방식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며, 영어의 네 기술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대부분이었다(이화자, 1996). 그러나, 이러한 단순 암기식의 개별 단어 학습은 지루함과 입력과 출력간의 비효율성으로 학습자의 영어 학습을 촉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어휘 지식은 개별 단어의 의미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며, 해당 단어와 함께 쓰이는 단어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아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많은 언어 자료가 두 단어 이상이 결합하여 어휘항목(lexical items)과 같은 뭉치말(chunks) 형태인 연어(collocation)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자료에서 그와 같은 어휘 항목에 익숙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Hill(2000)에 따르면, 2000개의 개별 단어를 알고 있는 학습자는 매우 제한적인 의사소통을 할

뿐이지만, 2000개의 개별 단어에 대한 연어적 능력(collocational competence)<sup>1)</sup>이 있는 학습자는 더 훌륭한 의사소통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여 연어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낙복, 2005).

영어 학습자들이 모국어와 영어 간 특성의 차이로 인해 영어 학습 시 혼란을 겪는 많은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유생성과 관련된 연어표현이다. 간략히 말해 유생성(animacy)<sup>2)</sup>이란, 생명을 가진 생물(animate)과 생명이 없는 무생물(inanimate)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생명의 유무, 즉 유생성에 따라 언어표현이 다르게 부호화(encode)<sup>3)</sup>되는 현상이 많은 언어에서 발견된다. 생물과 무생물이라는 의미적인 차이점이 우리말 구조에서는 부호화되는 반면 영어구조에서는 표현되지 않는다(김은일, 1998). 우리나라 교실 수업에서는 어휘에 대한 학습을 할 때, 개별 단어의 의미 파악에 주력하고 있을 뿐 그 어휘가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 혹은 영어라는 언어를 본질적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인 유생성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영어를 처음 접하게 되는 상당수의 영어학습자가 대명사 'this'가 'This is a book.'에서처럼 사물을 지칭할 때뿐만 아니라 'This is my sister.'에서처럼 사람을 지칭할 때도 사용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기하고 의아하게 생각하게 된다. 이는 우리말에서는 사물을 지칭할 때는 '이것'이, 사람을 지칭할 때는 '이 사람' 또는 '이 분' 등으로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이다. 조금 더 영어를 접하게 되면 학습자들이 우리말에서는 불가능한 'The hammer broke the window.'와 같은 무생물주어구문(inanimate

---

1) 연어(collocatio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장의 이론적 배경에서 다루어짐.

2) 유생성과 관련된 언어유형론(typology)적 연구는 Comrie(1989, 특히 9장), Croft(1990)와 Heine, Claudi, & Hünnemeyer(1991)을 참조하고, 유생성과 관련된 언어습득(aquisition)은 Lempert(1989, 1990), Howard(1995), Janda(1996)와 Poulin-Dubois, Lepage, & Ferland(1996) 참조

3) '부호화'(encoding)란 풀어 쓰자면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영어단어 'rice'는 '쌀'과 '밥'이라는 의미영역을 동시에 부호화(표현)한다.

subject construction)을 대하고 또 한번 신기해하고 의아해하게 된다.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학생들은 ‘go’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배울 뿐, 어떤 주어와 함께 올 수 있는 지 어떻게 쓰일 수 있는 지 다양한 용례와 맥락을 학습할 기회가 거의 없다. ‘I go to school everyday.’에서처럼 사람주어가 ‘go’와 쓰일 수도 있고, ‘This road goes to the village.’에서처럼 무생물 주어가 ‘go’와 함께 올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go’의 의미가 ‘가다’가 아닌 ‘(도로가)~에 이르다’로 해석된다. 국어에서는 ‘가다’라는 동사는 주로 사람이 주어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무생물주어인 ‘the road’도 ‘go’와 함께 쓰일 수 있다. 이러한 후자의 예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러한 문장을 접했을 시 흔히 보지 못했던 무생물주어가 ‘go’라는 동사와 함께 쓰임으로 인해 당황하게 된다.

또 다른 예로, 우리나라 학생들은 ‘The boy is tall.’과 같이 ‘tall’이라는 형용사가 사람주어와 함께 쓰이는 용례에는 익숙하나 ‘The building is tall.’과 같이 tall과 무생물주어가 함께 쓰이는 문장을 보면 어색함을 느끼고 ‘건물이 높은’이라는 의미로는 ‘high’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cf. 정연창·염지민·장세은, 2006).

이러한 단순한 예들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는 사람과 쓰이는지 무생물과 쓰이는지에 따라, 즉 유생성에 따라 서술어 표현이 달라진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물론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유생성에 관계없이 같은 의미라면 동일한 단어를 쓰는 경향이 있다.

이렇듯, 유생성 개념이 부호화되는 방식은 언어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간의 유생성 차이에 따른 언어 특성이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 특히 중학생들의 영어 연어능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실제로, 유생성이라는 분야에 대한 연구가 우리

나라에서는 그리 많이 이루어 지지 않아 유생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맥에서 과연 우리나라 영어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어휘 활용과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언어 간의 유생성 부호화의 차이로 인해 언어 사용이나 어휘 학습에서 학습자들이 과연 간섭현상을 겪게 되는 지, 영어 어휘 학습에 있어 이러한 유생성 차이가 실제로 영향을 끼치는 지를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 1.2 연구과제

본 연구는 한국어와 유생성 부호화에서 차이를 보이는 영어 형용사와 동사에 대한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영어 연어능력과, 그와 대조적으로 유생성에 있어 두 언어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어휘들에 대한 영어 연어능력은 어떠한 지를 문제지를 통한 테스트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실제로 이러한 유생성 차이에 따른 언어 특성이 학생들의 영어 연어능력과 어휘 학습에 과연 영향을 미치는 지를 논의해 볼 것이다.

연구과제: 유생성 부호화의 차이가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영어 연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2.1 연어

#### 2.1.1 연어의 정의

일반적으로 연어란 단어들의 결합을 말한다. 즉, 연어는 어휘의미 구조상 다양한 결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어휘와만 습관적으로 결합하는 어휘항목의 연쇄를 지칭한다(Firth 1957, Robins 1964, Halliday 1966, Palmer 1981, Cruse 1986, Jackson 1988). 예컨대, 영어에서는 ‘turn off the light’라고는 하지만 ‘\*close the light’<sup>4)</sup>라고는 하지 않으며, ‘strong coffee’라고는 하지만 ‘powerful coffee’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또한 ‘powerful weapon/engine’이라는 말은 가능해도 ‘\*strong weapon/engine’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연어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른데 우선 그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언어학에서 연어에 대한 용어는 Palmer(1933)가 처음으로 사용한 이래 Firth(1957: p. 20)가 “The word is known by the company it keeps”라고 단어간 결합 학습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연어의 정의를 “Collocations of a given word are statements of the habitual or customary places of that word”(p. 181)라고 하여 연어의 습관성과 관습성을 언급하였다. 그 후 많은 언어학자들에 의해 연어는 어휘의 특성과 어휘관계(lexical relations)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언어 현상으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McCarthy(1990)는 연어를 “Collocation is a marriage contract

---

4) \*는 비문을 나타냄.

between words, and some words are more firmly married to each other than others”(p. 12)라고 정의하여 단어간의 결합관계인 연어를 혼인에 빗대어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Sinclair(1991)는 연어를 “텍스트 내의 짧은 어간에서 두 단어 혹은 그 이상의 단어가 빈번히 함께 발생하는 것이다”(p. 170)라고 정의하였다.

### 2.1.2 연어의 의미

실제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은 언어의 이해와 생성에 있어, 어휘의 결합적 특성을 알고 사용하는데 직관적이고 체계적이다. 반면에, EFL 상황의 학습자들은 낱개의 어휘력은 풍부할지라도 풍부한 연어지식이 없어 머릿속 어휘사전에서 어휘항목들을 제대로 연결하고 재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김낙복, 2005). Hill(2000)이 지적한 바와 같이 원어민은 능동적 어휘 사용자로서 언어적 능력을 가지고 개별 단어를 몽칫말로 결합하여 언어기술을 사용할 것이다. 반면에, 비원어민은 2000 단어에 대한 낱개의 의미는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개별단어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많은 언어 연구자들이 언어 지식은 언어적 지식(collocational knowledge)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저장된 단어들의 연속체가 언어 학습, 지식, 사용의 기본이기 때문에 언어적 지식이 중요하며 많은 언어 학습은 연속적으로 관찰된 언어 항목사이의 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Ellis 1997, Lewis 1997, McCarthy 1990, Willis 1990).

이렇듯, 언어능력은 외국어 학습, 특히 영어 학습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해 학습자들이 잘못된 연어를 쓰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말 표현이 영어에 전이된 경우의 예를 들면 tall building 대신 \*high building, a good heart 대신 \*a beautiful mind, a powerful car 대신 \*a strong car를 쓰는 경향이 있다(김익환 2007). 그러므로, 한국어와 영어 간의 유생성 부호화 차이가 학생들의 언어능력에 과연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 2.2 유생성

### 2.2.1 유생성이란?

Givón(1984, 1993)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문법학자들은 의미 또는 기능영역(functional domain)이 어떻게 문법장치(coding device)로 부호(code)화되느냐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왔다. 또한, 유생성(animacy)이라는 의미영역이 개별언어의 문법체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언어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부호화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cf. Comrie 1989, Yamamoto 1999: 70). 그러면 유생성이란 무엇인가? 1장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유생성이란 생명을 가진 생물과 생명이 없는 무생물을 통칭하는 용어로, 생명의 유무에 따라 언어표현이 다르게 부호화되는 현상이 많은 언어에서 발견된다. 유생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Comrie(1989: 9장), Croft(1990), 그리고 Yamamoto(1999)에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생성은 주로 명사형태론, 동사형태론, 어순, 주어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김은일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유생성 현상이 문법의 일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문법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는 것이고, 본 논문은 그 연구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이 그러한 현상을 어느 정도 내재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제, 본 논문의 이론적 근거인 유생성 차이에 의한 한·영 언어 구조 비교에 관한 연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2.2 유생성의 차이에 따른 한·영 구조 비교

우리말은 유생성을 엄격히 구분하는데 비해 영어는 유생성에 상관없이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다.<sup>5)</sup>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 구조는 생물이나 아니면 무생물이나에 따라 다른 표현이 사용되는데 반해, 영어 구조는 생물과 무생물에 상관없이 한가지 표현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비교적 일찍 접하게 되는 몇가지 언어구조로 인해 영어도 우리말과 같이 생물과 무생물이 구분되어 부호화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예를 들어 보면, 3인칭 단수 대명사의 경우, 사람은 ‘he/she’가, 그리고 무생물은 ‘it’이 사용되어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가 영어구조에도 부호화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극소수이고 영어구조에서는 유생성의 구분이 부호화되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유생성의 구분이 부호화되지 않는 현상은 언어계층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데 가장 작은 단위인 형태적(morphological) 계층에서부터 점차 더 큰 계층인 어휘적(lexical) 계층, 그리고 통사적(syntactic) 계층의 순서로 살펴보자.

---

5) 유생성을 구분짓는 경계는 언어마다 달라지는데, 사람·고등동물, 동물·식물, 또는 식물·무생물의 구분성이 그 경계가 되기도 한다 (cf, Comrie 1989, Croft 1990). 우리말에서는 유생성의 구분이 경우에 따라 동물·식물, 또는 사람·동물의 구분선이 그 경계가 되는 것 같다. 하지만 각 경계의 변동리에 위치한 많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cf. Schlesinger 1995). 본 연구에서는 원형(prototype)이론에 따라 생물을 지칭할 때는 생물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사람을, 무생물이라 지칭할 때는 주로 사물을 이용하겠다.

### 2.2.2.1 형태적 계층

형태적(morphological) 계층이란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가장 작은 언어단위인 형태소의 계층을 의미하는데, 어간, 접두사, 접미사 등이 하나의 형태소가 된다. 영어의 한 형태소인 ‘-er’가 우리말 상당어귀에서는 유생성에 따라 다른 표현이 사용되지만 영어에 있어서는 사람과 무생물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형태소 ‘-er’가 사용된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 ‘fighter’는 우리말에서는 유생성의 구분에 따라 사람과 무생물을 구분하여 ‘투사’와 ‘전투기’로 표현되지만, 영어에서는 동일한 접미사 ‘-er’를 사용한다. 또한 ‘-(a)n’과 ‘-ese’도 사람뿐만 아니라 무생물을 지칭하는데 사용된다. 물론 우리말에서는 유생성에 따라 구분이 된다.

<표 1> 형태적 계층의 예

단어	사람	무생물
<i>hanger</i>	교수형 집행인	양복걸이
<i>speaker</i>	연설자	스피커
<i>stroller</i>	산책하는 사람	유모차
<i>Korean</i>	한국인	한국어
<i>Italian</i>	이태리인	이태리어
<i>Japanese</i>	일본인	일본어

### 2.2.2.2 어휘적 계층

형태소보다 상위의 계층인 어휘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즉, 우리말에는 유생성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만 영어에서는 유생성에 상관없이 같은 표현이 사용된다. 여기에서는 신체부위를 포함한 명사, 대명사, 그리고 제한적 용법의 형용사를 살펴보겠다.

<표 2> 어휘적 계층 중 명사의 예

명사	사람	무생물
master	주인	모장치(컴퓨터, 기계 따위)
position	지위	위치, 장소
slave	노예	종속장치((컴퓨터, 기계 따위)
star	유명인	별
subject	국민, 백성	과목
title	직함	제목
milk	모유	우유
operation	수술	조작
ear	귀	(냄비 따위의) 손잡이
eye	눈	썩, (바늘)귀, (단추)구멍, 작은 고리
hand	손	(시계)바늘

<표 3> 어휘적 계층 중 대명사의 예

대명사	사람	무생물
this	이 사람, 이 분 <sup>6)</sup>	이것
he	그(남자)	수컷
she	그녀	암컷
one	(~한) 사람	(~한) 것

6) 우리말에서는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이나 신분 등에 따라 ‘이 분, 이 사람, 이 놈’ 등으로 다르게 표현된다. 이와 유사한 예로, 영어로는 동일한 ‘office’를 지칭할 때도 사용자의 신분 등에 따라 ‘집무실, 연구실, 교무실, 사무실’ 등으로 표현된다.

<표 4> 어휘적 계층 중 형용사의 예

형용사	사람	무생물
bright	boy (현명한)	sunlight (밝은)
old	man (늙은)	shoes/wine (오래된)
poor	boy (가난한/가여운)	soil/ore (메마른/함량이 낮은)
tall	boy (키가 큰)	building (높은)
young	child (어린/젊은)	nation/college (신생)

형용사는 서술어와 수식어로 사용될 수 있다. 문장의 다른 구성성분과 관계되는 서술적 용법은 통사계층을 다루는 부분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위의 예에서는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형용사만을 소개하였다. 위의 예에서처럼 우리말과 달리 영어의 경우는 같은 형용사가 유생성이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데 사용된다.

### 2.2.2.3 통사적 계층

문장의 한 구성성분이 다른 구성성분과 연관성을 맺을 때를 통사적 계층이라 부른다. 위에서 살펴 본 어휘적 계층은 명사구(NP) 내의 현상인데 반해, 서술어는 다른 구성성분과 반드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통사적 계층에서 다루기로 한다. 여기에서 살펴 볼 서술어는 형용사의 서술적용법과 동사이다.

#### 1) 서술 형용사

영어의 서술적 형용사는 우리말의 상대어귀와는 달리, 동일 서술형용사가 유생성과 상관없이 사람이든 물이든 주어로 취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수식형용사도 서술적인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young’을

예로 들어보면 ‘He is still young. The day is still young.’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주어로 사람뿐만 아니라 무생물이 될 수 있다. 더 많은 예가 아래 <표5>에 나타나 있다. 아래 예에서 1)과 2) 표시는 각각 사람과 무생물의 예를 나타낸다.

<표 5> 통사적 계층 중 형용사의 예

형용사	예문
cheap	1) <i>She is cheap.</i> <sup>7)</sup> (돈을 잘 쓰지 않는다) 2) <i>It is cheap.</i> (싸다)
free	1) <i>I am free now.</i> (자유롭다/시간이 남다) 2) <i>It is free.</i> (공짜다)
full	1) <i>I am full.</i> (배가 부르다) 2) <i>The glass is full of water.</i> (가득 차다)
old	1) <i>He is old.</i> (늙었다/나이가 들었다) 2) <i>The building is old.</i> (낡았다/오래되었다)
year(s) old	1) <i>She is 40 years old.</i> (<나이가>~세이다) 2) <i>My car is 3 years old.</i> (<~년> 되었다)

## 2) 동사

영어의 동사 역시 우리말과는 달리 유생성에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는데, 그 참여자(participant) 혹은 논항(argument)의 통사적 위치에 따라 주어, 목적어, 간접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7) 우리말에도 ‘싸구려다’라는 표현이 있으나 영어와는 달리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라는 의미로 사용 되는 것 같다.

(1) 주어

우리말에서는 사람만 주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가 영어에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무생물도 주어자리에 올 수 있다. 이것이 소위 무생물주어라 불리는 것이다. 물론, 우리말 가운데도 동사에 따라 무생물주어구문이 가능하기도 하다. 예를 들어, ‘산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에서처럼 타동성(transitivity)<sup>8)</sup>이 낮은 동사는 무생물주어를 허용한다. 아래 예의 동사에 해당하는 우리말 동사는 사람(또는 고등동물)을 주어로 취하는 동사인데 영어 동사는 무생물을 주어로 취할 수 있다. 타동성이 비교적 높은 ‘drink’의 경우를 예로 들면, 우리말에서는 사람은 물을 마신다고 할 수 있으나 식물이 ‘물을 마신다’라고는 결코 할 수 없다. 식물은 ‘빨아들이다’라는 전혀 다른 동사가 사용된다. 반면, 영어에서는 유생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표현이 사용된다.

<표 6> 통사적 계층 중 주어+동사의 예 (1)

동사	무생물주어구문
drink (마시다)	<i>Plants drink up water.</i> (빨아들이다)
eat (먹다)	<i>Rust eats iron.</i> (부식시키다)
lie (눕다)	<i>The book lies on the table.</i> (놓여있다)
like (좋아하다)	<i>I like oysters, but they don't like me.</i> (맞지 않다)
gain (얻다)	<i>My watch gains five minutes a day.</i> (빨리 간다)
lose (잃다)	<i>My watch loses ten minutes a day.</i> (늦게 간다)
run (달리다)	<i>The machine runs on gasoline.</i> (움직인다)
stand (서다)	<i>Tears stood in her eyes.</i> (고여(정체되어)있다)
touch (만지다)	<i>Your skirt is touching the paint.</i> (닿다)

8) 타동성(transitivity)은 행위성(agentivity), 영향성(affectedness) 및 완료성(perfectivity)에 의해 결정된다. 행위자(agent)가 의도성을 갖고 행위를 시작하고, 목적대상(patient)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영향을 받고 행위 자체가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빠른 변화를 보여주는 동사를 타동성이 높다고 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타동성이 낮다고 한다. 비교적 쉽고자세한 논의는 Givón(1993) 참조. 그리고 행위성과 관련된 깊이있는 논의는 Cruse(1973)과 Van Oosten(1985) 참조.

아래 예의 무생물주어는 우리말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말로 옮길 때 ‘~로, ~때문에, ~하면’ 등으로 옮겨지고 주어는 문장 내부 혹은 외부의 다른 참여자로 바뀐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예문을 우리말로 옮기면, ‘이 표로 한사람이 입장할 수 있다’처럼 무생물주어는 ‘이 표로’가 되고 영어의 목적어 ‘한 사람’이 주어로 나타난다.

<표 7> 통사적 계층 중 주어+동사의 예 (2)

동사	무생물주어구문
admit	<i>This ticket admits one person.</i>
answer	<i>His method has not answered.</i>
claim	<i>The problem claims out attention.</i>
demand	<i>This works demands a great care.</i>
desert	<i>His courage deserted him.</i>
employ	<i>This work will employ 60 men.</i>
finish	<i>The heat finished her off.</i>
fix	<i>The matter fixed her attention.</i>
go	<i>This road goes to Seoul.</i>
know	<i>Necessity knows no law.</i>
promise	<i>The clouds promise rain.</i>
say	<i>The Bible says that.</i>
sit	<i>The pie sat heavily on his stomach.</i>
take	<i>This street will take you to the station.</i>
teach	<i>The accident has taught him to be careful.</i>
tell	<i>The clock told<sup>9)</sup> the time.</i>
wait	<i>My paper work will wait.</i>
want	<i>That work wants patience.</i>

9) ‘tell’과 같은 동사는 영어의 영향을 받아 ‘그 박살난 자동차가 슬픈 얘기를 말해주었다(The smashed automobile told a sad story)’에서처럼 사물이 주어자리에 오기도 하지만 ‘그 박살난 자

(2) 목적어

우리말에서는 목적어의 유생성에 따라 다른 동사가 사용되는데 반해, 영어는 목적어의 유생성에 상관없이 같은 동사가 사용된다. ‘bring’을 예로 들어 보면, 우리말은 목적어가 사람인 경우는 ‘데리고 오다’<sup>10)</sup>가 되고 목적어가 사물인 경우에는 ‘가지고 오다’가 된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사람, 사물 구분하지 않고 ‘bring’을 사용한다.

<표 8> 통사적 계층 중 동사+목적어의 예

동사	목적어위치
adopt	1) The couple adopted <i>a child</i> as their heir. (양자로 삼다) 2) They adopted <i>his proposal</i> . (채택하다)
answer	1) He didn't answer <i>me</i> . (대답하다) 2) I'll answer <i>the phone</i> . (받다)
bring	1) Bring <i>your friend</i> to the party. (데리고 오다) 2) Bring <i>a bottle of wine</i> to the party. (가지고 오다)
call	1) He called <i>me</i> by my first name. (부르다) 2) The director called <i>a meeting</i> . (소집하다)
deliver	1) The doctor delivered <i>triplets</i> yesterday. (분만시키다) 2) The boy delivers <i>washing machines</i> . (배달하다)
kill	1) She killed <i>five birds</i> . (죽이다) 2) She killed <i>five years</i> on that study. (허송세월하다) 2) He killed <i>the pain</i> with a drug. (없애다)
lay	1) Mary laid <i>her child</i> to sleep. (눅히다) 2) John laid <i>a carpet</i> on corridor. (깔다)

동차를 보아 슬픈 얘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와 같은 표현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그리고 첫 번째의 경우도 ‘주다’라는 (조)동사의 도움 없이, ‘말했다’만으로는 결코 좋은 문장이 되지 못한다.  
10)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우리말에서는 사람 중에서도 나이, 신분 등에 따라 다른 표현이 사용되는데, 화자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모시고 오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pick up	1) I will pick <i>you</i> up. (차로 태워주다) 2) Harry picked up <i>the newspaper</i> . (집어 들다)
read	1) She read <i>him</i> like a book. (훑어보다) 2) She is reading <i>the Bible</i> . (읽다)
receive	1) She received <i>a visitor</i> . (맞이하다) 2) She received <i>a letter</i> from him. (받다)
take	1) John took <i>Mary</i> out for lunch. (데리고 가다) 2) Take <i>a raincoat</i> with you. (가지고 가다)

### (3) 간접목적어

주어와 목적어자리에서처럼 영어의 간접목적어 자리에도 사람뿐만 아니라 무생물도 올 수 있다. 아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give’의 간접목적어로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생물도 올 수 있다.

<표 9> 통사적 계층 중 동사+간접목적어의 예

동사	간접목적어 위치
give	She gave <i>him</i> a present.
	She gave <i>the door</i> a hard kick.
	Give <i>it</i> a try.
	Give <i>it</i> a stir.
	Give <i>it</i> some thought.

위의 마지막 세 예문의 ‘it’은 문맥에 따라 대체로 ‘어려운 일, 음식물, 아이디어’ 등의 무생물을 지칭할 수 있겠다.

#### (4)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sup>11)</sup>의 목적어로 사람이 오느냐 무생물이 오느냐에 따라 우리말의 전치사(조사)는 달라진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유생성에 상관없이 같은 전치사가 사용된다. 두 가지 예를 들겠다. 첫째, 우리말에서 지향점(goal)을 나타낼 때 사람인 경우에는 ‘~에게’가 오고 무생물인 경우에는 ‘~에’가 온다. 하지만 영어는 두 경우 모두 전치사 ‘to’를 사용한다. 즉, 우리말에서는 ‘그에게’와 ‘런던에’처럼 유생성에 따라 다른 표현이 사용되지만 영어에서는 ‘He gave it to him.’과 ‘He got to London.’에서처럼 유생성에 상관없이 같은 전치사 ‘to’가 사용된다.

둘째, 영어전치사 ‘with’의 경우 역시 우리말 상대어귀에서는 유생성에 따라 다른 전치사(조사)가 사용되는 반면 영어는 유생성에 상관없이 ‘with’가 사용된다. 즉, ‘I am working with my brother.’와 ‘I unlocked the door with the key.’의 예에서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람이 오거나 무생물이 오거나 상관없이 ‘with’가 사용되는 반면, 우리말은 사람인 경우는 ‘(형)과/와’가 되고 무생물인 경우는 ‘(열쇠)로’가 된다. 이 두 예는 의미역할(semantic role)로 보면, 각각 공동격(associative)과 도구격(instrument)으로 부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 전치사 외에 소위 구동사(phrasal verb)의 일부로서의 전치사 역시 유생성과 상관없이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아래 예는 각 구동사의 목적어로 사람과 무생물 모두 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

11) 우리말의 경우는 ‘조사’ 또는 ‘후치사’라고 불려야 하지만 편의상 전치사와 혼용하겠다.

<표 10> 통사적 계층 중 구동사+목적어의 예

동사	구동사의 목적어위치
come across	1) I came across <i>him</i> . 2) While cleaning the attic yesterday, I came across <i>an old photograph of my mother</i> .
agree with	1) I cannot agree with <i>you</i> on that matter. 2) The predicate verb must agree with <i>its subject</i> in person and number.

위의 예에서 ‘come across’와 ‘agree with’가 뒤에 오는 목적어의 유생성에 따라 각각 ‘우연히 만나다/발견하다’와 ‘동의하다/일치하다’로 번역된다.

### 2.2.3 유생성부호화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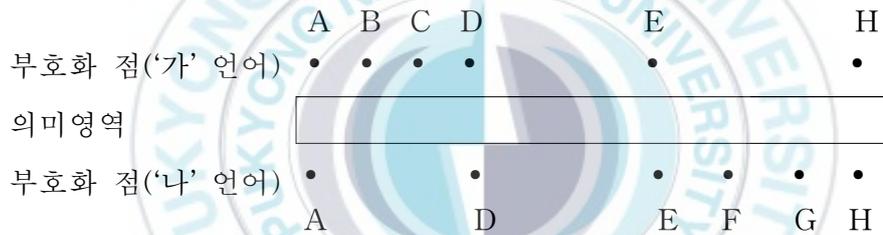
지금까지 우리는 국어에서는 유생성에 따라 다른 표현이 사용되지만 영어에서는 유생성과 상관없이 같은 표현이 사용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단어, 특정 품사, 또는 특정 언어계층에서만 일어나는 국부적 현상이 아니라 형태소, 어휘, 통사 등 다양한 계층에서, 그리고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등 다양한 품사에 걸쳐 일어나는 전국적 현상이라는 것도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기능문법의 틀에서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살펴보겠다.

언어는 의사소통 수단이다. 화자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나 메시지를 언어형태로 부호화한다. 이때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영역은 무한하고 그 의미영역을 담는 그릇이 되는 언어형태 또는 언어표현수단은 제한되어 있다(cf. Schlesinger 1995). 제한된 언어표현수단으로 무한한 의미영역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유사한 의미영역은 동일한 언어형태로 부호화하기 마련이다.

의미영역이 언어형태로 부호화되는 방식은 언어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의미영역이 언어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부호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의 의미영역의 통사적 부호화 도형을 살펴보자(cf. Givón 1984: 39).

<그림 1> 의미영역의 통사적 부호화 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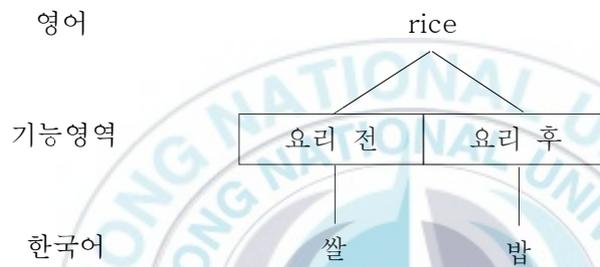


위의 도형은 같은 의미영역이 '가', '나'언어에 각기 어떻게 언어형태로 부호화되는 지를 보여준다. A에서 D까지의 의미영역이 '가'언어에서는 A, B, C, D라는 네 언어형태로 부호화되는 반면, '나'언어에서는 A, D라는 두 언어형태로만 부호화된다. 반대로 E에서 H까지의 의미영역에서는 '가'언어에서는 E, H라는 두 언어형태로 부호화되는 반면, '나'언어에서는 E, F, G, H라는 네 언어형태로 부호화된다. 같은 의미영역이 언어에 따라 더 많은 언어형태로 부호화(overcode)되기도 하고 더 작은 언어형태로 부호화(undercode)되기도 한다. 따라서, 같은 의미영역을 더 많은 언어형태로 부호화하는 언어는 더 적은 언어형태로 부호화하는 언어에서는 구분되지 않

는 의미영역까지도 구분을 짓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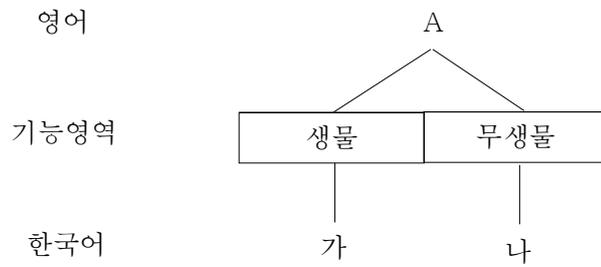
예를 들어, 아래의 <그림 2>의 예에서 보듯이 한국어는 ‘쌀’과 ‘밥’을 다른 어휘로 부호화하는 반면, 영어는 ‘rice’라는 하나의 어휘로 부호화한다.

<그림 2> ‘rice’의 예



이와 유사하게 유생성이라는 의미영역도 <그림 3>에서처럼 한국어에서는 생물·무생물에 해당하는 개념이 각기 다른 표현으로 부호화되는 반면에 영어는 유생성에 관계없이 하나의 표현으로 부호화된다.

<그림 3> 유생성 부호화의 예



이미 앞서 언급했듯이, 이 유생성의 부호화는 어휘의 의미영역의 부호화와는 달리 문법전반에 걸쳐 부호화된다.

지금까지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언어와 유생성 등에 대해 살펴보았고, 다음 장에서는 연구 방법, 절차 및 도구 등에 대해 다룰 것이다.

## III. 연구 방법

### 3.1 실험대상

본 논문의 실험 대상은 부산시 소재 A급지 중학교(이하 'A학교'라 칭함) 1곳, B급지 중학교(이하 'B학교'라 칭함) 1곳, C급지 중학교(이하 'C학교') 1곳의 3학년 각 한 학급씩이며, 답안작성을 잘못하거나 결석한 학생들은 제외하고 A학교는 31명, B학교는 33명, C학교는 31명 총 95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A학교는 31명으로 실험대상의 32.6%, B학교는 33명으로 실험대상의 34.7%, C학교는 31명으로 실험대상의 3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실험은 문제지를 이용하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유생성 관련 영어 언어능력을 측정하고자 한 것이었고 학생들에게 시험 요령에 대한 설명은 간단히 언급하였으나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 사전 설명은 하지 않았다.

### 3.2 실험설계

#### 3.2.1 실험대상 어휘선정

본 연구에서는 두 언어 간에 다르게 부호화되는 유생성 현상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특히, 통사적인 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과 동사를 위주로 문제지를

작성하여 한국어와 영어 간의 유생성 부호화 차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와 유생성과 관련된 영어 연어능력을 측정해 보고자 하였다.

앞서 다루었듯이, 영어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주어나 목적어 등의 유생성, 즉 생명의 유무에 따라 연결하여 사용되는 어휘가 달라지지 않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생명의 유무에 따라 연결어휘선택이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임의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한다.

- **‘유생성 동일부호화’ 어휘 또는 문항**

영어와 한국어에서 모두 주어나 목적어 등의 생명의 유무에 관계없이 똑같은 표현이 사용되는 어휘들을 ‘유생성 동일부호화’ 어휘라고 부르겠다. 예) ‘I’m cold and hungry.’에서 ‘cold’는 사람과 쓰여도 ‘추운’이라고 부호화되고 ‘The winter of 1998 was cold.’에서의 ‘cold’도 무생물주어구문에서 쓰여 또한 ‘추운’이라고 똑같은 한국어로 부호화된다. 이런 경우, ‘cold’가 ‘유생성 동일부호화’ 어휘에 해당하며, 본 연구를 위한 실험용 문제지에서 이러한 것을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이라고 부르겠다.

- **‘유생성 상이부호화’ 어휘 또는 문항**

영어에서는 주어, 목적어 등의 생명 유무에 관계없이 같은 표현을 쓰지만 한국어에서는 유생성에 따라 다른 표현으로 쓰이는 어휘들을 본 연구에서는 ‘유생성 상이부호화’ 어휘라고 부르겠다. 예) ‘He is tall.’에서의 ‘tall’은 사람과 쓰여 ‘키가 크다’라는 한국어로 부호화되지만, ‘The building is tall.’에서는 무생물과 쓰여 ‘건물이 높은’이라는 한국어로 부호화된다. 이런 경우 ‘tall’이 ‘유생성 상이부호화’ 어휘에 해당하며 본 연구를 위한 실험용 문제지에서 이러한 것을 묻는 문제를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이라고 하겠다.

- ‘무표(unmarked)문항’

무표문항은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들 중에서 한 쌍(pair)를 이루는 어휘 문항들 중 그 어휘의 기본의미, 대표의미로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배우는 의미를 묻는 문항을 일컫는다. 예) ‘He is tall.’과 ‘The building is tall.’과 같이 ‘tall’에 대해 쌍을 이루는 두 문항 중 ‘무표문항’은 ‘He’와 쓰인 ‘tall’을 묻는 문항이다. 학생들은 어휘학습 시 ‘tall’의 대표의미로 ‘키가 큰’이라고 기본적으로 학습하기 때문이다.

- ‘유표(marked)문항’

유표문항은 위의 ‘무표문항’에 대척되는 용어이다. 즉,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들 중 한 쌍을 이루는 어휘에 대한 문항들 중 그 어휘의 대표의미가 아닌, 생명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한국어 표현을 아는 지를 묻는 문항이다. 예) ‘tall’과 관련된 두 문항 ‘He is tall.’과 ‘The building is tall.’에서 무생물인 ‘The building’과 쓰여 ‘건물이 높은’이라고 표현될 때 적절한 연결 어휘로 ‘tall’이라는 어휘를 선택할 수 있는 지를 묻는 문항이 ‘유표문항’이다. 이러한 의미는 학생들이 ‘tall’의 의미학습 시에 기본적인 의미로는 학습하지 않는 것이다.

- ‘비유표(non-marked)문항’

이 용어는 본 논문의 주논의 대상인 ‘유표문항’이 아닌 그 외의 모든 문항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40개) +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들 중 무표문항(20개)’를 의미한다. 이것은 연구의 초점인 ‘유표문항집단’과 ‘유표문항이 아닌 문항집단’ 두 집단 간의 실험결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편의상 도출한 용어이다.

이렇게 두 언어 간에 유생성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표현되는 ‘유생성 동일부호화’ 어휘들과 유생성에 따라 한국어표현이 달라지는 ‘유생성 상이부호화’ 어휘들에 대한 학생들의 언어능력을 비교 분석하여, 두 문항집단 간 학생들의 정답률이 얼마나 차이나는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학생들은 생명의 유무에 따라 영어에서는 같은 표현이지만 한국어에서는 표현이 달라지는 어휘들에 대해 과연 상대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실험을 하기 위해 ‘제7차 중학교 교육과정’(교육부, 1997)의 영어과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기본 어휘 관련 지침 및 어휘표’를 참조하여 실험 대상인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어휘를 형용사와 동사 중에서 총 40개를 선정하였다. 유생성 동일부호화 형용사 10개, 동사 10개, 그리고 유생성 상이부호화 형용사 10개, 동사 10개를 실험 문항으로 삼았다<sup>12)</sup>.

#### 가. 형용사

##### A. 유생성 동일부호화 어휘<sup>13)</sup>

- 1) clean (깨끗한)
- 2) cold (추운)
- 3) quick (빠른)
- 4) big (큰)
- 5) light (가벼운)
- 6) dead (죽은)
- 7) famous (유명한)

12) 특히, 형용사는 Givón(2002)의 분류에 따라 각 분야별 형용사가 가능한 고르게 선택되도록 하였다.

13) 본 논문에서 선정한 한국어와 영어 간 유생성 동일부호화 어휘의 목록은 각 어휘가 괄호 안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국한한다. 그 이유는 각 단어들이 괄호 안에 기재된 의미 이외에도 다양한 문맥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8) weak (약한)
- 9) beautiful (아름다운)
- 10) strong (강한)

B. 유생성 상이부호화 어휘<sup>14)</sup>

- 1) full (배가 부른<sup>15)</sup>, 가득찬)
- 2) busy (바쁜, 붐비는)
- 3) free (자유로운, 무료/공짜인)
- 4) tall (키가 큰, <건물등이> 높은)
- 5) short (키가 작은, 짧은)
- 6) heavy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무거운)
- 7) thin (마른, 얇은)
- 8) bright (영리한/똑똑한, 밝은)
- 9) old (나이가 든, 낡은/오래된)
- 10) young (젊은, 신생의)

위에서 유생성 동일부호화 현상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은 사람주어가 오든, 무생물주어가 오든 같은 한국어 의미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beautiful’의 경우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문맥에서 ‘*The girl was very beautiful.*’에서와 같이 사람과 쓰이든, ‘*The garden is so beautiful.*’에서와 같이 무생물주어와 쓰이든 ‘아름답다’라는 같은 한국어로 부호화된다. 이러한 유생성 동일부호화 현상을 보이는 문맥에서 우리나라

14) 한국어와 유생성에 따른 부호화 차이로 인해 사람과 쓰일 때와 무생물(혹은 동,식물)과 쓰일 때 달라지는 뜻을 사람과 쓰일 때와 무생물과 쓰일 때의 의미 순으로 기재하였다.

15) 여기서 굵은 글씨체는 유생성 상이부호화 어휘 중 기본적인 의미로 학습되지 않는 의미이며 유생성 부호화 차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는 의미로 여겨지는 것들이다. 이 어휘들이 유표(marked)문항에 해당한다.

영어학습자들은 ‘아름답다’라는 의미로 주어의 유생성과 관계없이 ‘beautiful’이라는 단어를 쉽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유생성 상이부호화를 보이는 형용사 어휘들, 예를 들어 ‘free’의 경우 ‘I am free.’에서와 같이 사람주어와 쓰일 경우에는 ‘자유롭다’라는 말로 부호화되고, ‘The lunch is free.’에서와 같이 무생물주어구문에서는 ‘무료(공짜)다’라는 의미로 부호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언어 간의 유생성 차이에 인해 부호화가 달라지는 경우, 우리나라 학습자들은 모국어의 영향으로 쉽사리 적절한 단어를 찾아 쓰거나 주어진 문맥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리라 짐작된다.

## 나. 동사

### A. 유생성 동일부호화 어휘

#### a. 주어의 유생성 관련

- 1) move (움직이다)
- 2) die (죽다)
- 3) fall (떨어지다)
- 4) grow (자라다)
- 5) need (필요하다)

#### b. 목적어의 유생성 관련

- 1) kick (차다)
- 2) listen (귀를 기울이다)
- 3) send (보내다)
- 4) understand (이해하다)
- 5) save (구하다)

B. 유생성 상이부호화 어휘

a. 주어의 유생성 관련

- 1) go (가다, <도로 등이>~로 이르다/통하다)
- 2) run (달리다, 흐르다)
- 3) stand (서다, 위치하다/~에 있다)
- 4) lie (눕다, 놓여있다)
- 5) touch (만지다, 닿다)
- 6) tell (말하다, 나타내다)

b. 목적어의 유생성 관련

- 1) take (데려가다, 가져가다)
- 2) read (훑어보다, 읽다)
- 3) answer (대답하다, <전화를>받다)
- 4) receive (~를 맞이하다, 받다)

동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생성 동일부호화 현상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사람(주어 혹은 목적어)과 쓰이든, 무생물(주어 혹은 목적어)과 쓰이든 같은 한국어 의미로 부호화된다. 예를 들어, 'He kicked *the door*.'에서와 같이 무생물이 목적어로 오든, 'An ostrich can kick *a man* to death.'에서와 같이 사람목적어가 오든, '차다'라는 의미로 부호화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생성 상이부호화를 보이는 동사 어휘들, 예를 들어 'take'의 경우 'I took *my friend* to the church.'에서와 같이 사람목적어와 쓰일 경우에는 '데리고 가다'라는 의미로 부호화되고, 'She took *a bottle of wine* to the party.'에서와 같이 무생물과 쓰이는 경우 '가지고 가다'라는 의미로 부호화될 수 있다. 동사의 경우도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두 언어 간의 유생성 차이에 인해 한국어 표현이 달라지는 경우, 우리나라 학습자들

은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해 쉽사리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여 연결시키거나 주어진 문맥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리라 추측된다.

### 3.2.2 실험문항 설계

실험문항의 설계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가. 유생성 동일부호화 형용사 10개, 동사 10개에 대해 각각 사람과 쓰인 문항과 무생물(혹은 동·식물)과 함께 쓰인 문항을 각각 한 쌍(pair)씩 만들어서 총 80문항 중 40문항이 이에 해당하는 문항이다. 이는 유생성 동일부호화 어휘 즉, 사람주어(혹은 목적어)와 쓰이든 무생물주어(혹은 목적어)와 쓰이든 관계없이 한국어로는 동일하게 표현되는 어휘들에 대한 학생들의 연어 능력을 알아보고자 함이다.

나. 유생성 상이부호화 즉, 유생성 부호화차이로 인해 사람주어(혹은 목적어)와 사용되었을 경우와 무생물주어(혹은 목적어)와 사용되었을 경우에 영어에서는 같지만 한국어로는 달리 표현되는 영어 형용사 10개, 동사 10개에 대해 각각 한 쌍씩 문항을 만들어서 총 80문항 중 40문항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중 20문항들은 학생들이 각 어휘의 기본적인 의미로 어휘 학습 시 가장 우선적으로 학습하여 쉽게 접할 수 있는 의미를 포함한 문항들(무표(unmarked)문항)이고 나머지 20문항은 영어에서는 생명의 유무에 관계없이 같은 말을 쓰지만 한국어에서는 유생성 차이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는 어휘들로, 본 논문의 문제지의 핵심적인 문항들(유표(marked)문항)이라 할 수 있다.

부연하자면,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어휘를 학습할 때, 각 어휘의 대표적인 의미, 예를 들어 ‘tell’의 경우 ‘말하다’로 기계적으로 암기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요구받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tell’이 어떠한 담화 상황에서 또는 어떠한 문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지, 무생물 주어도 ‘tell’이라는 동사와 흔히 쓰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학습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리하여, 이러한 예에서처럼 우리나라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각 어휘의 대표적 혹은 기본적 의미로서 학습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문항(무표문항)과 유생성 상이부호화로 인해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혼돈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문항(유표문항)을 각 어휘별로 한 쌍씩 구성하여, 두 가지 경우 모두에 대한 영어 연어능력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 아래의 문항 예시를 참조하면 본 연구의 문항설계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1) 유생성 동일부호화 어휘 중 famous의 문항 예
  - a. 이 마을은 경치로 유명하다. *This town is \_\_\_\_\_ for scenery.*
  - b. 그는 발명가로 유명해졌다. *He became \_\_\_\_\_ as an inventor.*
  
- 2) 유생성 상이부호화 어휘 중 tall의 문항 예
  - a. 그 소년은 키가 크고 잘생겼다. *The boy is very \_\_\_\_\_ and handsome. (무표문항)*
  - b. 그 건물은 매우 높다. *The building is very \_\_\_\_\_. (유표문항)*

1)의 범주에 속하는 문항들에서는 ‘유명한’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는 주어의 유생성에 상관없이 같은 단어 ‘famous’를 쓸 수 있다. 이러한 어휘들

은 유생성 부호화가 두 언어 간 동일하므로 둘 중 어느 하나를 맞힐 수 있다면 나머지 한 문항을 맞히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2)의 범주의 문항들에서는 주어가 사람과 사물이 올 때 한국어에서는 각각 서술어가 달라져도 영어에서는 유생성에 관계없이 같은 단어 'tall'을 학생들이 연결어휘로 선택하여 쓸 수 있는 지 살펴보고 싶다. 아마도 1)의 범주의 문항들에 비해, 2)의 범주의 문항의 정답률이 더 낮을 것이라 예상되고, 2)의 범주 중에서도 유표문항을 더 어려워할 것이라 예상된다.

라. 모든 문항들은 학생들의 추측에 의한 정답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모두 순서를 임의로 배치하였다. (부록 - 실험용 문제지 참조)

마. 문항은 빈 칸에 알맞은 어휘를 묻는 식으로 제출하였다. 형용사의 경우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 20개와 상이부호화 문항 20개를 나누어 각각 28개 정도의 보기 단어가 들어 있는 박스에서 답을 고르도록 하였고(오답 보기 각 18개) 동사의 경우 40문항 모두 4지 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하였다. 형용사와 동사의 출제방식을 달리한 이유는 형용사의 경우 4지 선다형으로 출제할 경우 추측에 의해 정답을 맞힐 확률이 높아 박스에서 고르기를 하였고 동사의 경우, 박스형으로 할 경우 다른 답도 정문이 될 수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을 피하고자 함이었다.

바. 한글 해석도 각 문항마다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학생들이 국어와 영어 간의 유생성 차이에 기인한 두 언어 간 부호화 차이 현상을 극복하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어휘로 선택할 수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사. 문제지의 대부분의 문항들은 Collins COBUILD 사전(2003), 동아프  
라임사전(2005), YBM 시사영어사 사전(2005) 등에서 추출하여 사용하였고  
어려운 예제의 경우 중학생의 수준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 3.2.3 실험도구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한 문제지는 전술했듯이 형용사와 동사 각 20개씩을 선정하  
여 유생성 동일부호화 어휘 40문항(형용사 10개 각 2문제 + 동사 10개 각  
2문제)과 유생성 상이부호화 어휘 중 무표문항 20개(형용사 10개 각 1문제  
+ 동사 10개 각 1문제)와 유표문항 20개(형용사 10개 각 1문제 + 동사 10  
개 각 1문제)로 총 8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11>는 문항 별로 어떻게 문제지가 구성되어 있는 지를 나타내고 있  
다. 굵은 글씨체는 유표 문항을 나타내고 [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주어의  
유생성 관련 문항이고 [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목적어의 유생성과 관련  
된 문항이다.

<표 11> 어휘별 문항 구성

유생성 동일부호화 어휘			유생성 상이부호화 어휘			
	단어	사람	무생물	단어	사람	무생물
형용사	clean[주]	문항1	문항16	full[주]	<b>문항21</b>	문항33
	strong[주]	문항11	문항2	busy[주]	문항29	<b>문항22</b>
	big[주]	문항8	문항3	short[주]	<b>문항23</b>	문항30
	famous[주]	문항13	문항4	old[주]	문항24	<b>문항35</b>
	quick[주]	문항5	문항14	thin[주]	<b>문항25</b>	문항32
	dead[주]	문항6	문항20	young[주]	문항26	<b>문항40</b>
	weak[주]	문항7	문항18	tall[주]	문항27	<b>문항34</b>
	light[주]	문항9	문항17	heavy[주]	문항28	<b>문항38</b>
	beautiful[주]	문항15	문항10	free[주]	문항36	<b>문항31</b>
	cold[주]	문항12	문항19	bright[주]	<b>문항37</b>	문항39
합계(A)		10	10	합계	10	10
동사	send[목]	문항78	문항42	take[목]	<b>문항41</b>	문항
	understand[목]	문항44	문항62	receive[목]	<b>문항75</b>	문항43
	fall[주]	문항46	문항76	touch[주]	문항45	<b>문항71</b>
	listen[목]	문항48	문항74	lie[주]	문항47	<b>문항61</b>
	move[주]	문항50	문항64	go[주]	문항63	<b>문항49</b>
	die[주]	문항52	문항70	answer[목]	문항69	<b>문항51</b>
	kick[목]	문항66	문항54	stand[주]	문항77	<b>문항53</b>
	grow[주]	문항68	문항56	read[목]	<b>문항80</b>	문항55
	save[목]	문항59	문항72	tell[주]	문항57	<b>문항65</b>
	need[주]	문항79	문항60	run[주]	문항58	<b>문항67</b>
합계(B)		10	10	합계	10	10
총합계(A+B)		40		무표(20)+유표문항(20) 합계		40

이 실험에서 살펴볼 것은 첫째,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 40개(형용사 10 단어의 20문항 + 동사 10단어의 20문항)와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 40개(형용사 10단어의 20문항 + 동사 10단어의 20문항)에 대한 전체 학생들의 정답률 차이를 비교하여 유생성 부호화 차이가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다.

둘째,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 40개(형용사 10단어의 20문항 + 동사 10 단어의 20문항)와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 중 무표문항 20개(형용사 10단

어의 10문항 + 동사 10단어의 10문항)의 총 60문항의 정답률과 유생성의 상이부호화 문항 중 본 논문의 연구의 초점인 유표문항 20개의 정답률을 비교하면 유생성 부호화 차이가 과연 학생들의 어휘학습 및 언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통계는 SPSS를 사용하였다.



## IV. 결과 분석 및 논의

이 장에서는 문제지를 통한 실험의 결과와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이다. 4.1에서는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볼 것이고 특히, 첫 번째로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들과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들에 대한 결과를 비교·분석하고, 두 번째로 ‘유표(marked)문항’ 집단과 그 이외 나머지 문항들인 ‘비유표(non-marked)문항’ 집단의 평균정답률을 비교·분석해 볼 것이다. 4.2에서는 형용사 관련 문항들의 결과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고, 4.3에서는 동시에 관련된 문항들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한다.

### 4.1 전체 결과

#### 4.1.1 유생성 동일부호화와 상이부호화 문항 집단 간 비교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과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의 평균 정답률 차이 여부를 보기 위해 독립집단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은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 40문항(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 집단),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 40문항(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평균 정답률 차이 여부를 알아보았다.

<표 12> 문항별 정답률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		
문항	정답	정답자수 (정답률)	문항	정답	정답자수 (정답률)
문항1	clean	81(85.3%)	문항24	old	83(87.4%)
문항16	clean	60(63.2%)	<b>문항35</b>	<b>old</b>	<b>68(71.6%)</b>
문항11	strong	68(71.6%)	문항26	young	88(92.6%)
문항2	strong	74(77.9%)	<b>문항40</b>	<b>young</b>	<b>39(41.1%)</b>
문항8	big	75(78.9%)	문항27	tall	81(85.3%)
문항3	big	87(91.6%)	<b>문항34</b>	<b>tall</b>	<b>14(14.7%)</b>
문항13	famous	84(88.4%)	문항28	heavy	80(84.2%)
문항4	famous	84(88.4%)	<b>문항38</b>	<b>heavy</b>	<b>35(36.8%)</b>
문항5	quick	62(65.3%)	문항29	busy	76(80.0%)
문항14	quick	64(67.4%)	<b>문항22</b>	<b>busy</b>	<b>16(16.8%)</b>
문항6	dead	89(93.7%)	<b>문항23</b>	<b>short</b>	<b>74(77.9%)</b>
문항20	dead	88(92.6%)	문항30	short	89(93.7%)
문항7	weak	48(50.5%)	<b>문항25</b>	<b>thin</b>	<b>71(74.7%)</b>
문항18	weak	46(48.4%)	문항32	thin	48(50.5%)
문항9	light	47(49.5%)	<b>문항21</b>	<b>full</b>	<b>77(81.1%)</b>
문항17	light	47(49.5%)	문항33	full	68(71.6%)
문항15	beautiful	94(98.9%)	문항36	free	83(87.4%)
문항10	beautiful	94(98.9%)	<b>문항31</b>	<b>free</b>	<b>42(44.2%)</b>
문항12	cold	91(95.8%)	<b>문항37</b>	<b>bright</b>	<b>20(21.1%)</b>
문항19	cold	93(97.9%)	문항39	bright	49(51.6%)
문항78	send	68(71.6%)	<b>문항75</b>	<b>receive</b>	<b>42(44.2%)</b>
문항42	send	84(88.4%)	문항43	receive	75(78.9%)
문항44	understand	87(91.6%)	문항45	touch	91(95.8%)
문항62	understand	92(96.8%)	<b>문항71</b>	<b>touch</b>	<b>73(76.8%)</b>
문항46	fall	71(74.7%)	문항47	lie	15(15.8%)
문항76	fall	74(77.9%)	<b>문항61</b>	<b>lie</b>	<b>7(7.4%)</b>
문항48	listen	57(60.0%)	<b>문항80</b>	<b>read</b>	<b>12(12.6%)</b>
문항74	listen	58(61.1%)	문항55	read	92(96.8%)
문항50	move	82(86.3%)	문항57	tell	85(89.5%)
문항64	move	80(84.2%)	<b>문항65</b>	<b>tell</b>	<b>10(10.5%)</b>
문항52	die	89(93.7%)	문항58	run	87(91.6%)
문항70	die	92(96.8%)	<b>문항67</b>	run	34(35.8%)
문항66	kick	85(89.5%)	문항63	go	90(94.7%)
문항54	kick	87(91.6%)	<b>문항49</b>	<b>go</b>	<b>56(58.9%)</b>
문항68	grow	79(83.2%)	문항69	answer	79(83.2%)
문항56	grow	85(89.5%)	<b>문항51</b>	<b>answer</b>	<b>27(28.4%)</b>
문항59	save	71(74.7%)	<b>문항41</b>	<b>take</b>	<b>63(66.3%)</b>
문항72	save	65(68.4%)	문항73	take	71(74.7%)
문항79	need	86(90.5%)	문항77	stand	83(87.4%)
문항60	need	80(84.2%)	<b>문항53</b>	<b>stand</b>	<b>35(36.8%)</b>

\* 문항기재 순서는 사람, 무생물 관련 문항 순이고 굵은 글씨체는 유효문항이다.

<표 13> 문항집단 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문항집단 정답률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집단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집단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집단	
			무표문항집단	유표문항집단
평균점수	80.2%	61.3%	79.6%	42.9%
표준편차	15.2%	29.0%	19.8%	25.1%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 집단에 대한 정답률의 평균은 80.2%, 표준편차는 15.2%로 나타났으며,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 집단에 대한 정답률의 평균은 61.3%, 표준편차는 29.0%로 나타났다.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들 중 무표문항 20문항의 평균은 79.6%, 표준편차는 19.8%였으며, 유표문항 20문항의 평균은 42.9%, 표준편차는 25.1%로 나타났다.

<표 14> 문항 집단 간 평균 정답률 차이의 검정 결과

집단 평균 차이	t	자유도	P-value
18.9%	3.66	78	<0.001

위의 <표14>에 나타나듯이,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 집단과 상이부호화 문항 집단 간의 평균 정답률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문항 집단 간 평균 정답률의 차이는 18.9%이었으며, 검정통계량 t값은 3.66, P-value<0.001로 유의확률 5%내에서 통계적 근거가 충분하여,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 집단의 평균 정답률과 상이부호화 문항 집단의 평균 정답률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두 집단 간의 평균 정답률을 통하여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의 문제들이 동일부호화 문항의 문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어렵게 느낀다고 할 수 있다.

#### 4.1.2 유표(marked)문항 vs 비유표(non-marked)문항 집단

앞에서 이미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과 상이부호화 문항 간의 정답률을 비교해 보았지만, 실제로 본 논문의 연구의 초점은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 중 유표문항과 그 이외의 나머지 문항(비유표(non-marked)문항) 간의 비교이다. 무표문항은 유생성 상이문항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 문항들의 어휘의 의미들은 학생들이 각 어휘들의 대표적인(혹은 기본적인) 의미로 학습해온 것을 묻는 문항들이므로,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들과 비슷한 성격을 지닐 것이다. 그러므로, 유표문항과 비유표문항들의 정답률을 비교하여 학생들이 유표문항에 대해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끼는 지를 분석해 보았다.

<표 15> 유표문항 집단과 비유표문항 집단의 정답률

비유표문항				유표문항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 중 무표문항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 중 유표문항	
문항번호	정답률	문항번호	정답률	문항번호	정답률	문항번호	정답률
문항1	85.3%	문항42	88.4%	문항24	87.4%	문항21	81.1%
문항2	77.9%	문항44	91.6%	문항26	92.6%	문항22	16.8%
문항3	91.6%	문항46	74.7%	문항27	85.3%	문항23	77.9%
문항4	88.4%	문항48	60.0%	문항28	84.2%	문항25	74.7%
문항5	65.3%	문항50	86.3%	문항29	80.0%	문항31	44.2%
문항6	93.7%	문항52	93.7%	문항30	93.7%	문항34	14.7%
문항7	50.5%	문항54	91.6%	문항32	50.5%	문항35	71.6%
문항8	78.9%	문항56	89.5%	문항33	71.6%	문항37	21.1%
문항9	49.5%	문항59	74.7%	문항36	87.4%	문항38	36.8%
문항10	98.9%	문항60	84.2%	문항39	51.6%	문항40	41.1%
문항11	71.6%	문항62	96.8%	문항43	78.9%	문항41	66.3%
문항12	95.8%	문항64	84.2%	문항45	95.8%	문항49	58.9%
문항13	88.4%	문항66	89.5%	문항47	15.8%	문항51	28.4%

문항14	67.4%	문항68	83.2%	문항55	96.8%	문항53	36.8%
문항15	98.9%	문항70	96.8%	문항57	89.5%	문항61	7.4%
문항16	63.2%	문항72	68.4%	문항58	91.6%	문항65	10.5%
문항17	49.5%	문항74	61.1%	문항63	94.7%	문항67	35.8%
문항18	48.4%	문항76	77.9%	문항69	83.2%	문항71	76.8%
문항19	97.9%	문항78	71.6%	문항73	74.7%	문항75	44.2%
문항20	92.6%	문항79	90.5%	문항77	87.4%	문항80	12.6%
평균			80.2%		평균		42.9%
표준편차			16.6%		표준편차		25.1%

유생성 동일부호화 관련 40문항과 유생성 상이부호화 관련 문항들 중 무표문항 20문항을 그룹화하며, 유생성 상이부호화문항들 중 유표문항 20문항을 그룹화하여, 두 문항 집단의 정답률 평균 비교를 실시하였다.

<표 16> 유표문항 집단과 비유표문항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비교	문항종류	N	평균	표준편차
비유표문항 집단	동일부호화 문항 + 상이부호화 문항 중 무표문항	60	80.2%	16.6%
유표문항 집단	상이부호화 문항 중 유표문항	20	42.9%	25.1%

<표 16>에서 보듯이, 비유표문항 집단의 정답률 평균은 80.2%, 표준편차는 16.6%이며, 유표문항 집단의 정답률 평균은 42.9%, 표준편차는 25.1%로 나타났다. 정답률 차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7> 문항 집단 간 정답률 평균 차이의 검정 결과

집단 평균 차이	t	자유도	P-value
37.3%	6.17	78	<0.001

유표문항 집단과 비유표문항 집단의 평균 정답률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문항 집단 간 평균 정답률의 차이는 37.3%이었으며, 검정통계량 t값은 6.17, P-value<0.001로 유의수준 5%내에서 유표문항 집단의 평균 정답률과 비유표문항 집단의 평균 정답률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유표문항들이 비유표문항들에 비해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낀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형용사와 동사를 따로 분류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 4.2 형용사 관련 문항

### 4.2.1 실험 결과

형용사 문항 중 비유표문항 30문항과 유표문항 10문항 간의 평균 정답률 차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집단 T-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표 18> 형용사 문항 간 결과 비교

비유표문항 (형용사)								유표문항(형용사)	
정답	사람	정답률	무생물	정답률	정답	무표문항	정답률	유표문항	정답률
clean	문항1	85.3%	문항16	63.2%	full	문33	71.6%	문21	81.1%
strong	문항11	71.6%	문항2	77.9%	busy	문29	80.0%	문22	16.8%
big	문항8	78.9%	문항3	91.6%	short	문30	93.7%	문23	77.9%
famous	문항13	88.4%	문항4	88.4%	old	문24	87.4%	문35	71.6%
quick	문항5	65.3%	문항14	67.4%	thin	문32	50.5%	문25	74.7%
dead	문항6	93.7%	문항20	92.6%	young	문26	92.6%	문40	41.1%
weak	문항7	50.5%	문항18	48.4%	tall	문27	85.3%	문34	14.7%
light	문항9	49.5%	문항17	49.5%	heavy	문28	84.2%	문38	36.8%
beautiful	문항15	98.9%	문항10	98.9%	free	문36	87.4%	문31	44.2%
cold	문항12	95.8%	문항19	97.9%	bright	문39	51.6%	문37	21.1%
평균					77.9%			평균	48.0%
표준편차					17.1%			표준편차	26.3%

\*굵은 글씨체는 유표문항이다.

<표 19> 각 집단의 형용사 문항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형용사)	N	평균	표준편차
비유표문항 집단	30	77.9%	17.1%
유표문항 집단	10	48.0%	26.3%

비유표문항 집단의 형용사 문제 평균 정답률은 77.9%, 표준편차 17.1%였으며, 유표문항 집단의 형용사 문제 평균 정답률은 48.0%, 표준편차 26.3%로 나타났다.

<표 20> 문항 집단 간 평균 정답률 차이의 검정 결과

집단 평균 차이	t	자유도	P-value
29.9%	3.36	38	0.006

비유표문항 집단과 유표문항 집단의 형용사 문항에 관련된 평균 정답률 차이 여부를 분석한 결과, 두 문항 집단 간 형용사 문항에 대한 평균 정답률의 차이는 29.9%였으며, 검정통계량 t값은 3.36, P-value=0.006로 유의확률 5%내에서 통계적 근거가 충분하여, 비유표문항 집단과 유표문항 집단의 형용사 문항에 대한 평균 정답률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형용사 또한 유표문항 집단이 상대적으로 비유표문항 집단에 비해 학생들에게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 4.2.2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

형용사 문항 중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들, 즉 주어가 사람인지 무생물인지 관계없이 한국어와 영어 간에 동일하게 부호화되는 문항들에 대한 결과와 그 특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표 21>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 중 형용사 문항의 정답률 비교

No	정답	사람	정답률	무생물	정답률
1	clean(깨끗한)	문항16	63.2%	문항1	85.3%
2	strong(강한)	문항11	71.6%	문항2	77.9%
3	big(큰)	문항8	78.9%	문항3	91.6%
4	famous(유명한)	문항13	88.4%	문항4	88.4%
5	quick(빠른)	문항5	65.3%	문항14	67.4%
6	dead(죽은)	문항6	93.7%	문항20	92.6%
7	weak(약한)	문항7	50.5%	문항18	48.4%
8	light(가벼운)	문항9	49.5%	문항17	49.5%
9	beautiful(아름다운)	문항15	98.9%	문항10	98.9%
10	cold(추운)	문항12	95.8%	문항19	97.9%

<표 22>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 중 형용사 문항의 정답률 순위

No.	정답	사람	정답률	No.	정답	무생물	정답률
1	beautiful	문항15	98.9%	1	beautiful	문항10	98.9%
2	cold	문항12	95.8%	2	cold	문항19	97.9%
3	dead	문항6	93.7%	3	dead	문항20	92.6%
4	famous	문항13	88.4%	4	big	문항3	91.6%
5	clean	문항1	85.3%	5	famous	문항4	88.4%
6	big	문항8	78.9%	6	strong	문항2	77.9%
7	strong	문항11	71.6%	7	quick	문항14	67.4%
8	quick	문항5	65.3%	8	clean	문항16	63.2%
9	weak	문항7	50.5%	9	light	문항17	49.5%
10	light	문항9	49.5%	10	weak	문항18	48.4%
평균		77.7%		표준편차		18.2%	

형용사와 관련된 문항들 중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 20문항 (사람주어 관련 10문항, 무생물주어 관련 10문항)의 평균 정답률은 77.7%, 표준편차 18.2%로 <표 21>에서 보듯이 주어의 유생성, 즉 주어가 사람인지 무생물 인지가 같은 어휘의 두 문항 간의 평균 정답률에도 그다지 영향이 없었고 <표 22>에서 보여지듯 정답률 순위도 두 문항 간에 그다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주어의 유생성이 학생들이 정답을 맞히는데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유생성 차이에 의해 사람과 쓰였을 때와 무생물과 쓰였을 때의 정답률이 가장 차이가 나는 문항은 'clean'으로, 정답률 차이가 22.1%에 이른다. 그리고, 사람과 쓰였을 때 정답률이 제일 낮은 문항, 즉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했던 문항은 9번 문항으로 '가볍다'는 의미의 light가 사람주어와 쓰였을 때이며 정답률 49.5%이다. 무생물과 쓰였을 때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항은 'weak'로서 정답률이 48.4%로 나타났다.

## 1) clean

- 사람주어: 문항16) 그 대통령은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The president is clean and honest. (정답률 63.2%)*

- 무생물주어: 문항1) 그의 손은 씻어서 깨끗했다.

*His hands were clean because he washed them. (정답률 85.3%)*

‘clean’이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집단 중 사람주어 문항과 무생물주어 문항 간의 정답률 차이가 가장 컸고 사람주어와 쓰였을 때 정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clean’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고 쓰이는 경우를 학생들이 잘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

## 2) light

- 사람주어: 문항9) 그녀는 공기처럼 가벼웠다.

*She was as light as air. (정답률 49.5%)*

- 무생물주어: 문항17) 그 신발은 가볍고 편하다.

*The shoes are light and comfortable. (정답률 49.5%)*

유생성이 한국어와 영어 간에 동일하게 부호화됨에도 불구하고 light에 대한 정답률이 주어의 유생성에 관계없이 낮은 것은 학생들이 아직 light가 ‘가볍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학습하지 못해서인 것 같고, 오답의 유형이 weight, slight 등과 같이 15-16개로 다른 문항에 비해 아주 다양한 것 또한 이 어휘에 대한 학습이 별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을 짐작케 한다.<sup>16)</sup>

16)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아마도, 일반적으로 말해 ‘light’가 유표(marked)어휘로 무표(unmarked)인 ‘heavy’에 비해 학생들이 자주 접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 다음 절에서 다루어지는 ‘heavy’의 정답률이 84.2%로 ‘light’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이 이

### 3) weak

- 사람주어: 문항7) 그는 그것을 들기에는 너무 약해 보였다.

*He looked too weak to pick it up. (정답률 50.5%)*

- 무생물주어: 문항18) 그 유리컵은 약해서 쉽게 깨질 지도 모른다.

*The glass is so weak that it may break easily. (정답률 48.4%)*

‘약하다’라는 의미의 ‘weak’ 또한 주어의 유생성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정답률이 모두 낮았다. 사람주어과 관계된 문항 7번과 무생물주어 문항 18번의 정답률은 각각 50.5%와 48.4%로 주어의 유생성에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다소 어려운 어휘로 생각된다. ‘weak’의 오답유형이 light, slight 등과 같이 각각 17개, 14개인 것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sup>17)</sup>

## 4.2.3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

이제, 형용사 문항 중 본 연구의 초점인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들, 즉 주어의 유생성에 따라 한국어와 영어 간에 다른 방식으로 부호화되는 문항들에 대한 결과와 그 특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 4.2.3.1 무표문항과 유표문항의 정답률 순위

<표 23>은 형용사 무표문항, 즉 해당 어휘의 기본적 의미로 학습한 의

---

것을 뒷받침해준다.

17) 각주 16)의 ‘light’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weak’ 또한 무표(unmarked)어휘인 ‘strong’에 대해 유표(marked)어휘로써 ‘strong’의 정답률(71.6%, 77.9%)에 비해 훨씬 낮게 나타나는 이유가 학생들이 유표어휘를 무표에 비해 자주 접하지 못했기 때문인것 같다.

미를 묻는 문항 10개와 유표문항, 즉 언어 간의 유생성 부호화차이로 인해 해당 어휘의 기본적인 의미와 다르게 한국어로 표현되는 의미를 묻는 문항 10개의 평균 정답률 순위를 보여주는데, 이는 어느 문항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표 23>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 중 형용사 문항의 정답률 순위

No.	정답	무표문항	정답률	No.	정답	유표문항	정답률
1	short (짧은)	문항30	93.7%	1	full (배부른)	문항21	81.1%
2	young (젊은)	문항26	92.6%	2	short (키가 작은)	문항23	77.9%
3	old (늙은)	문항24	87.4%	3	thin (야윈)	문항25	74.7%
3	free (자유로운)	문항36	87.4%	3	old (낡은)	문항35	71.6%
5	tall (키가 큰)	문항27	85.3%	5	free (무료인)	문항31	44.2%
6	heavy (무거운)	문항28	84.2%	6	young (신생의)	문항40	41.1%
7	busy (바쁜)	문항29	80.0%	7	heavy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문항38	36.8%
8	full (가득찬)	문항33	71.6%	8	bright (영리한)	문항37	21.1%
9	bright (밝은)	문항39	51.6%	9	busy (빤비는)	문항22	16.8%
10	thin (얇은)	문항32	50.5%	10	tall (<건물이> 높은)	문항34	14.7%
평균		63.3%		표준편차		26.3%	

무표문항 중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 했던 문제는 ‘thin’이 무생물주어와 쓰여 ‘얇은’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이고, 유표문항 중에서는 ‘tall’이 ‘(건물 등이) 높은’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 정답률이 가장 낮았다. 각 어휘들의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4.2.3.2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 4.2.3.2 무표문항과 유표문항 결과 분석

이제 무표문항과 유표문항의 같은 어휘 쌍(pair) 간의 평균 정답률 결과를 살펴보고 문항 간의 비교 분석을 해보자.

<표 24>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 중 형용사 문항의 정답률 비교

No	정답	무표문항	정답률	정답	유표문항	정답률
1	full(가득찬)	문항33	71.6%	full(배부른)	문항21	81.1%
2	short(짧은)	문항30	93.7%	short(키가 작은)	문항23	77.9%
3	thin(얇은)	문항32	50.5%	thin(마른, 야윈)	문항25	74.7%
4	old(나이든)	문항24	87.4%	old(낡은)	문항35	71.6%
5	free(자유로운)	문항36	87.4%	free(무료인)	문항31	44.2%
6	young(젊은)	문항26	92.6%	young(신생의)	문항40	41.1%
7	heavy(무거운)	문항28	84.2%	heavy(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문항38	36.8%
8	bright(밝은)	문항39	51.6%	bright(영리한)	문항37	21.1%
9	busy(바쁜)	문항29	80.0%	busy(붐비는)	문항22	16.8%
10	tall(키가 큰)	문항27	85.3%	tall(<건물이> 높은)	문항34	14.7%

<표 24>은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들 중 형용사와 관련된 무표문항 10 문항과 유표문항 10문항에 대한 같은 어휘 쌍(pair) 간의 정답률을 비교할 수 있게 해 준다. 대체로, 같은 어휘에 대해 유표문항의 정답률이 무표문항의 정답률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유표문항에 대해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유생성 부호화 차이로 인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예를 들어, 'bright'에 대해 '밝다'라는 의미(정답률 51.6%)만을 알고 있을 뿐, 사람과 쓰이면 '영리하다'(정답률 21.1%)는 뜻으로 의미가 확장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특이한 점은, full과 thin의 경우는 오히려 무표문항의 정답률이 유표문항의 정답률보다 높다는 것이다.

### 1) full

- 무표문항: 문항33) 그 방은 만화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The room was full of comic books. (정답률 71.6%)

- 유표문항: 문항21) 배가 부르면 그만 먹어라.

Stop eating when you're full. (정답률 81.1%)

두 문항 간 평균 점수 차이는 9.5%이고 'full'의 경우에는 유표문항의 평균 점수가 무표문항보다 더 높았다. 이것은 full의 기본적인 의미인 '~로 가득 차 있는'보다 'I'm full.'에서와 같이 '배가 부르'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학습하거나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두 문항의 오답으로는 'filled'가 가장 많이 나타나 학생들이 두 어휘 간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 thin

- 무표문항: 문항32) 저 책은 고등학생들이 보기에는 너무 얇아 보인다.

That book looks too thin for high school students. (정답률 50.5%)

- 유표문항: 문항25) 새로운 우리 선생님은 아주 말랐지만 유쾌하시다.

Our new teacher is very thin, but cheerful. (정답률 74.7%)

두 문항의 정답률 차이는 24.2%로 'thin'의 경우도 또한, 무생물과 쓰이는 무표문항인 '얇은'의 의미를 묻는 문항이 사람과 쓰이는 유표문항인 '야윈, 마른'의 의미를 묻는 문항보다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추측컨대, 'thin'의

경우는 요즈음 학생들의 관심사가 외모에 대한 부분이 크므로 외모를 표현하는 의미인 ‘마른’이라는 의미에 더 익숙한 것 같다.

### 3) short

- 무표문항: 문항30) 그 개의 꼬리는 짧다.

*The dog's tail is short.* (정답률 93.7%)

- 유표문항: 문항23) 저쪽에 있는 학생은 정말 키가 작다.

*The student over there is very short.* (정답률 77.9%)

‘short’의 경우, 주어의 유생성에 관계없이 모두 정답률이 높았지만 두 문항 간의 정답률 차이는 15.8%로 적지 않았다. ‘short’는 ‘키가 작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보다 ‘짧다’의 의미로 쓰일 때 정답률이 더 높았다.

### 4) old

- 무표문항: 문항24) 거실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아주 나이가 많다.

*The people in the living room are very old.* (정답률 87.4%)

- 유표문항: 문항35) 저 흰색차는 꽤 낡았다.

*That white car is quite old.* (정답률 71.6%)

‘old’는 학생들이 ‘I’m 13 years old.’, ‘How old are you?’ 등 ‘old’를 주로 사람주어와 함께 쓰인 문장을 많이 접했으므로, 무생물주어와 쓰여 ‘낡은’의 의미를 묻는 유표문항이 사람주어와 쓰인 무표문항의 정답률보다 낮았던 것 같다. 정답률 차이는 15.8%를 나타내었다.

### 5) free

- 무표문항: 문항36) 나는 점심시간에는 항상 자유롭다.

*I'm always **free** at lunch time. (정답률 87.4%)*

- 유표문항: 문항31) 그 식당에서의 저녁은 공짜였다.

*The dinner in the restaurant was **free**. (정답률 44.2%)*

무표문항과 유표문항 간의 정답률 차이는 43.2%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이 문항에서 쓰인 'free'의 '공짜/무료의'라는 의미를 '자유롭다'는 의미(정답률 87.4%)보다 상대적으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free'는 기본적으로 '~이 없다' '~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의미가 확장되어 'free (of charge)'로 'charge(요금, 청구대금)으로부터 자유롭다/없다'에서 '무료인'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으로 주로 무생물주어구문으로 쓰인다.

### 6) young

- 무표문항: 문항26) 그녀가 결혼했을 때 그녀는 그렇게 어리지 않았다.

*She was not so **young** when she got married. (정답률 92.6%)*

- 유표문항: 문항40) 그 당시에 그 나라는 오래되지 않은 신생국가였다.

*The country was **young** at that time. (정답률 41.1%)*

위 두 문항 간의 정답률 차이는 51.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위에서 보다시피, 'young'이 '어린/젊은'의 의미로 사람과 쓰일 때는 정답률이 매우 높았으나, 무생물주어인 'the country'와 쓰일 때는 정답률이 아주 낮다. 'young'이 주어의 유생성에 따라 한국어로 달리 표현되므로 '신생국'이라는 의미를 학생들이 'young country'를 쉽사리 떠올리지 못한 것이다.<sup>18)</sup>

18) 이 문항은, 신생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문제에 '오래되지 않은'이라는 부가적인 구문을 넣어주었다.

### 7) heavy

- 무표문항: 문항28) 상자 안에 있는 수박은 정말 무겁다.  
*The watermelon in the box is really **heavy**.* (정답률 84.2%)
- 유표문항: 문항38) 그는 너무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 저울을 사용할 수 없다.  
He cannot use the scale because *he* is too **heavy**. (정답률 36.8%)

두 문항 간 정답률 차이는 47.4%로 역시 상당히 높다. 같은 ‘무거운’의 의미를 가지더라도 위의 두 문항과 같이 유생성에 의해 한국어로 표현되는 방식이 달라지면 정답률에 큰 차이를 보인다. 오답으로는 두 문항 모두 ‘weight’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 8) bright

- 무표문항: 문항39) 그 교실은 아주 밝고 따뜻했다.  
*The classroom was very **bright** and warm.* (정답률 51.6%)
- 유표문항: 문항37) Susan은 아주 영리하고 예의바르다.  
*Susan is very **bright** and polite.* (정답률 21.1%)

두 문항 간 정답률 차이는 30.5%로, ‘bright’가 ‘밝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실험 대상 학생들 중 절반 정도가 알고 있지만, 유생성 부호화 차이로 인해 사람과 쓰이면 ‘영리한/똑똑한’의 뜻을 가진다는 것을 학생들 중 상당수가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 9) busy

- 무표문항: 문항29) Jenny는 거기 가기에는 너무 바쁘다.  
*Jenny is too **busy** to go there.* (정답률 80.0%)

- 유표문항: 문항22) 그 시장은 항상 사람들로 **붐빈다**.

*The market is always **busy** with people.* (정답률 16.8%)

이 두 문항 간의 정답률 차이는 63.2%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busy’는 학생들이 주로 ‘바쁘다’라는 의미로 많이 학습해왔으나 사람과 쓰일 때의 문맥만 거의 접했을 뿐, ‘The line is busy’와 같이 무생물주어구문은 숙어처럼 암기하는 방식으로 학습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유표문항에서 보듯이 무생물주어구문, 특히 ‘거리, 도로, 시장’등의 공간과 쓰이면 ‘바쁜’에서 ‘붐비는, 복잡한’이라는 한국어로 표현되며, ‘line’과 쓰이면 ‘(전화) 바쁜/붐비는’, 즉 ‘통화중’이라는 의미로 의미 확장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학생들은 아직 이러한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0) tall

- 무표문항: 문항27) 그 소년은 아주 **키가 크고** 잘생겼다.

*The boy is very **tall** and handsome.* (정답률 85.3%)

- 유표문항: 문항34) 그 건물은 아주 **높다**.

*The building is very **tall**.* (정답률 14.7%)

이 두 문항 간의 정답률 차이는 70.6%로 10개 형용사의 20문항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ll’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키가 큰’이라는 의미는 잘 알고 있지만(정답률 85.3%), ‘(건물이) 높은’의 의미로 쓰일 때는 ‘tall’의 정답률이 14.7%에 불과했다. 오답으로 ‘high’라고 답한 학생이 전체 95명 중 75명(78.95%)으로 아마도 ‘tall’의 의미 학습 시 주로 사람주어가 쓰이는 문맥만 제공되었을 뿐, 학생들이 다양한 예문을 접하지 못했던 것 같고 대부

분의 학생들이 'tall' 대신, '높다'라는 영어표현으로 바로 떠올릴 수 있는 'high'를 정답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지금까지 형용사와 관련된 문항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고, 다음 절에서는 동사와 관련된 문항들에 대한 정답률 결과를 알아보고 그 결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4.3 동사 관련 문항

#### 4.3.1 실험 결과

동사 문항 중 비유표문항 30문항과 유표문항 10문항 간의 평균 정답률 차이 여부를 알아보았다. 분석 방법은 독립집단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25> 동사 문항 간 결과 비교

비유표문항 (동사)								유표문항(동사)	
정답	사람	정답률	무생물	정답률	정답	무표문항	정답률	유표문항	정답률
send[목]	문항78	71.6%	문항42	88.4%	take[목]	문항73	74.7%	문항41	66.3%
understand[목]	문항44	91.6%	문항62	96.8%	receive[목]	문항43	78.9%	문항75	44.2%
fall[주]	문항46	74.7%	문항76	77.9%	touch[주]	문항45	95.8%	문항71	76.8%
listen[목]	문항48	60.0%	문항74	61.1%	lie[주]	문항47	15.8%	문항61	7.4%
move[주]	문항50	86.3%	문항64	84.2%	go[주]	문항63	94.7%	문항49	58.9%
die[주]	문항52	93.7%	문항70	96.8%	answer[목]	문항69	83.2%	문항51	28.4%
kick[목]	문항66	89.5%	문항54	91.6%	stand[주]	문항77	87.4%	문항53	36.8%
grow[목]	문항68	83.2%	문항56	89.5%	read[목]	문항55	96.8%	문항80	12.6%
save[목]	문항59	74.7%	문항72	68.4%	tell[주]	문항57	89.5%	문항65	10.5%
need[주]	문항79	90.5%	문항60	84.2%	run[주]	문항58	91.6%	문항67	35.8%
평균	82.1%				평균	37.8%			
표준편차	16.1%				표준편차	24.1%			

\* [주]는 주어의 유생성과 관련된 문항, [목]은 목적어의 유생성과 관련된 문항.

<표 26> 각 집단의 동사 문항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동사)	N	평균	표준편차
비유표문항 집단	30	82.1%	16.1%
유표문항 집단	10	37.8%	24.1%

비유표문항 집단의 동사 문제 평균 정답률은 82.1%, 표준편차 16.1%였으며, 유표문항 집단의 동사 문제 평균 정답률은 37.8%, 표준편차 24.1%로 나타났다.

<표 27> 문항 집단 간 평균 정답률 차이의 검정 결과

집단 평균 차이	t	자유도	P-value
44.3%	6.62	38	<0.001

비유표문항 집단과 유표문항 집단의 동사 문항에 관련된 평균 정답률 차이가 여부를 분석한 결과, 두 문항 집단 간 동사 문항에 대한 평균 정답률의 차이는 44.3%이었으며, 검정통계량 t값은 6.62, P-value<0.001로 유의확률 5% 내에서 통계적 근거가 충분하여, 비유표문항 집단과 유표문항 집단의 동사 문항에 대한 평균 정답률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같은 동사에 관련된 문항이어도 학생들이 유표문항 집단의 동사 문항에 더 어려움을 느꼈다고 할 수 있다.

#### 4.3.2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

이제, 동사 문항 중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들, 즉 주어 혹은 목적어가 사람인지 무생물인지 관계없이 한국어와 영어 간에 동일하게 부호화되는 문항들에 대한 결과와 그 특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동사와 관련된 문항들 중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 20문항 (사람과 관련된 문항 10문항, 무생물과 관련된 문항 10문항)에 대해 <표 28>은 각 어휘의 같은 쌍(pair) 문항의 정답률이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보여주고 있고 <표 29>는 두 범주 간에 각각 어떤 문항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는지를 보여 준다.

<표 28>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 중 동사 문항의 정답률 비교

No.	정답	사람	정답률	무생물	정답률
1	send[목] (보내다)	문항78	71.6%	문항42	88.4%
2	understand[목] (이해하다)	문항44	91.6%	문항62	96.8%
3	fall[주] (떨어지다)	문항46	74.7%	문항76	77.9%
4	listen[목] (귀를 기울이다)	문항48	60.0%	문항74	61.1%
5	move[주] (움직이다)	문항50	86.3%	문항64	84.2%
6	die[주] (죽다)	문항52	93.7%	문항70	96.8%
7	kick[목] (차다)	문항66	89.5%	문항54	91.6%
8	grow[목] (자라다)	문항68	83.2%	문항56	89.5%
9	save[목] (구하다)	문항59	74.7%	문항72	68.4%
10	need[주] (필요로 하다)	문항79	90.5%	문항60	84.2%

\* [주]는 주어의 유생성과 관련된 문항, [목]은 목적어의 유생성과 관련된 문항.

<표 29>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 중 동사 문항의 정답률 순위

No.	정답	사람	정답률	No.	정답	무생물	정답률
1	die[주]	문항52	93.7%	1	die[주]	문항70	96.8%
2	understand[목]	문항44	91.6%	1	understand[목]	문항62	96.8%
3	need[주]	문항79	90.5%	3	kick[목]	문항54	91.6%
4	kick[목]	문항66	89.5%	4	grow[목]	문항56	89.5%
5	move[주]	문항50	86.3%	5	send[목]	문항42	88.4%
6	grow[목]	문항68	83.2%	6	move[주]	문항64	84.2%
7	fall[주]	문항46	74.7%	6	need[주]	문항60	84.2%
7	save[목]	문항59	74.7%	8	fall[주]	문항76	77.9%
9	send[목]	문항78	71.6%	9	save[목]	문항72	68.4%
10	listen[목]	문항48	60.0%	10	listen[목]	문항74	61.1%
평균		82.7%		표준편차		11.1%	

동사 관련 동일부호화 문항들의 평균 정답률은 82.7%, 표준편차 11.1%로 나타났고 두 문항 간의 정답률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8>에서

보듯이 주어 혹은 목적어가 사람인지 무생물인지가 평균 정답률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과 쓰인 문항과 무생물과 쓰인 문항 간 정답률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어휘는 ‘send’로 정답률 차이가 16.8%로 나타났다.

<표 29>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답률 순위에서 가장 쉬운 문항과 가장 어려운 문항이 유생성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타나 유생성이 동일하게 부호화되는 어휘들은 학생들이 가장 쉽게 느끼고 어렵게 느끼는 문제가 유생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두 언어 간 유생성이 동일하게 부호화되는 문항들에서는 주어 혹은 목적어의 유생성에 관계없이 정답률이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유생성 동일부호화 동사 문항 중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어휘는 사람과 쓰였을 때나 무생물과 쓰였을 때나 모두 ‘listen’이다.

### 1) send

- 사람목적어: 문항78) 그의 부모는 그를 기숙학교에 보냈다.  
His parents sent him to a boarding school. (정답률 71.6%)
- 무생물목적어: 문항42) 그는 음식과 옷가지들을 희생자들에게 보냈다.  
He sent food and clothes to the victims. (정답률 88.4%)

‘send’의 두 문항 간의 정답률 차이가 동사 관련 동일부호화 문항들 중 가장 높은 16.8%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학생들이 ‘send’가 사람목적어와 쓰이는 경우를 잘 접하지 못해서인 것으로 추측된다.

### 2) listen

- 사람목적어: 문항48) 여러분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I hope you will listen to me. (정답률 60.0%)

- 무생물목적어: 문항74) 내 딸은 그 충격적인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My daughter didn't listen to the shocking news. (정답률 61.1%)

'listen'의 오답의 유형으로는 'attend'와 'hear'이 가장 많아 학생들이 아직 이들 어휘 간의 차이점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 4.3.3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

다음은 동사 문항 중 본 연구의 초점인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들, 즉 주어의 유생성에 따라 한국어와 영어 간에 다른 방식으로 부호화되는 것을 묻는 문항들에 대한 결과와 그 특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 4.3.3.1 무표문항과 유표문항의 정답률 순위

아래의 <표 30>은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 중 동사 무표문항(해당 어휘의 기본적 의미로 학습한 의미를 묻는 문항) 10문항과 유표문항(언어 간에 유생성 부호화차이로 인해 해당 어휘의 기본적 의미와 다르게 한국어로 표현되는 의미를 묻는 문항) 10문항의 평균 정답률 순위를 보여주는데, 이는 어느 문항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표 30>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 중 동사 문항의 정답률 순위

No.	정답	무표문항	정답률	No.	정답	유표문항	정답률
1	read[목] (읽다)	문항55	96.8%	1	touch[주] (~이 닿다)	문항71	76.8%
2	touch[주] (만지다)	문항45	95.8%	2	take[목] (데리고 가다)	문항41	66.3%
3	go[주어] (가다)	문항63	94.7%	3	go[주어] (~로 이르다)	문항49	58.9%
3	run[주] (달리다)	문항58	91.6%	3	receive[목] (맞이하다)	문항75	44.2%
5	tell[주] (말하다)	문항57	89.5%	5	stand[주] (위치하다)	문항53	36.8%
6	stand[주] (서다)	문항77	87.4%	6	run[주] (호르다)	문항67	35.8%
7	answer[목] (답하다)	문항69	83.2%	7	answer[목] (<진화를> 받다)	문항51	28.4%
8	receive[목] (받다)	문항43	78.9%	8	read[목] (훑어보다)	문항80	12.6%
9	take[목] (가지고 가다)	문항73	74.7%	9	tell[주] (나타내다)	문항65	10.5%
10	lie[주] (눕다)	문항47	15.8%	10	lie[주] (놓여있다)	문항61	7.4%
평균		59.3%		표준편차		32.2%	

\* [주]는 주어의 유생성과 관련된 문항, [목]은 목적어의 유생성과 관련된 문항.

무표문항 중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 했던 문제는 ‘lie’가 ‘(사람이) 눕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이다. 유표문항 중에서도 역시 ‘lie’가 정답률이 가장 낮았는데 이 문항은 ‘(물건 등이) 놓여있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lie’의 의미에 대해 유생성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lie’를 제외하고 정답률이 제일 낮았던 문항은 무표문항 중에서는 ‘take (가지고 가다)’가 무생물목적어와 쓰였을 때(정답률 74.7%)였고 ‘tell(나타내다)’이 무생물주어와 사용되었을 때(정답률 10.5%)였다. ‘touch(닿다)’가 무

생물주어구문으로 사용되었을 때의 정답률(76.8%)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각 어휘들의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4.3.3.2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 4.3.3.2 무표문항과 유표문항 결과 분석

이제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 중 동사 무표문항과 유표문항의 같은 어휘 쌍(pair) 간의 평균 정답률 결과를 살펴보고 두 범주 간의 비교 분석을 해 보자.

<표 31>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 중 동사 문항의 정답률 비교

No.	정답	무표문항	정답률	정답	유표문항	정답률
1	take[목] (가지고 가다)	문항73	74.7%	take[목] (데리고 가다)	문항41	66.3%
2	receive[목] (받다)	문항43	78.9%	receive[목] (맞이하다)	문항75	44.2%
3	touch[주] (만지다)	문항45	95.8%	touch[주] (닿다)	문항71	76.8%
4	lie[주] (눕다)	문항47	15.8%	lie[주] (놓여있다)	문항61	7.4%
5	go[주] (가다)	문항63	94.7%	go[주] (~으로 이르다)	문항49	58.9%
6	answer[목] (답하다)	문항69	83.2%	answer[목] (<전화>받다)	문항51	28.4%
7	stand[주] (서다)	문항77	87.4%	stand[주] (위치하다)	문항53	36.8%
8	read[목] (읽다)	문항55	96.8%	read[목] (훑어보다)	문항80	12.6%
9	tell[주] (말하다)	문항57	89.5%	tell[주] (나타내다)	문항65	10.5%
10	run[주] (달리다)	문항58	91.6%	run[주] (호르다)	문항67	35.8%

<표 31>은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들 중 동사와 관련된 무표문항 10문항과 유표문항 10문항에 대한 같은 어휘 쌍(pair) 간의 정답률을 보여준다. 앞서 형용사의 유·무표문항 결과분석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같은 어휘에 대해 유표문항의 정답률이 무표문항의 정답률보다 현저히 낮

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유생성 부호화의 차이로 인해 학생들은 ‘stand’가 사람주어와 쓰이면 ‘서있다’(정답률 87.4%)는 의미지만, 무생물주어, 특히 건물 등과 사용되면 ‘위치하다’(정답률 36.8%)라고 표현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같은 단어에 대한 무표문항과 유표문항 간의 결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 1) take

- 무표문항: 문항73) Mark는 종종 공부를 하기 위해 Jenny의 집에 책을 가지고간다.

Mark often takes his books to Jenny's house to study. (정답률 74.7%)

- 유표문항: 문항41) 나는 내일 동생을 동물원에 데리고갈 것이다.

I will take my brother to the zoo tomorrow. (정답률 66.3%)

두 문항 간의 정답률 차이는 8.4%로 나타났다. 영어는 목적어의 유생성에 관계없이 같은 동사 ‘take’를 쓰지만, 한국어는 목적어로 사람이 오면 ‘데리고 가다’로, 무생물이 오면 ‘가지고 가다’로 부호화된다. ‘take’는 위의 결과에서 보듯이 ‘가지고 가다’의 경우보다 ‘데리고 가다’를 묻는 문항, 즉 사람이 목적어로 쓰이는 문항의 정답률이 좀 더 낮았다.

### 2) receive

- 무표문항: 문항43) 우리는 사과에 편지를 받았다.

We received a letter of apology. (정답률 78.9%)

- 유표문항: 문항75) 왕은 다시 손님들을 맞이했다.

The king received the guests again. (정답률 44.2%)

두 문항 간의 정답률 차이는 34.7%로 우리나라 학생들은 ‘receive’를 ‘받다’라는 의미로 주로 무생물이 목적어로 오는 구문을 많이 접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목적어로 오면 ‘맞이하다’로 부호화되는 것에는 익숙하지 못한 것 같다. 두 문항 간의 정답률 차이가 큰 것이 그것을 뒷받침해 준다. 오답으로는 ‘accept’가 가장 많았다.

### 3) touch

- 무표문항: 문항45) 꽃을 만지지 마시오.

*Don't **touch** the flowers.* (정답률 95.8%)

- 유표문항: 문항71) 너의 치마가 페인트에 닿는다.

*Your skirt is **touching** the paint.* (정답률 76.8%)

두 문항 간의 정답률 차이는 19.0%로 나타났다. ‘touch’는 사람주어와 쓰이면 ‘만지다’로 표현되지만 무생물주어와 함께 쓰이면 ‘~에 닿다’로 표현될 수 있다. ‘touch’의 유표문항의 경우는 다른 유표문항들에 비해서 정답률이 높은 편이었다.

### 4) lie

- 무표문항: 문항47) 풀밭에 누워 보지 않을래?

*Why don't you **lie** down on the grass?* (정답률 15.8%)

- 유표문항: 문항61) 그 책은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다.

*The book **lies** on my desk.* (정답률 7.4%)

‘lie’의 두 문항 간의 정답률 차이는 8.4%였다. ‘lie’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사람주어구문에서는 ‘~에 눕다’, 무생물주어구문에서는 ‘~에 놓여있다’로

부호화된다. 'lie'의 경우는 무표문항인 사람주어구문과 유표문항인 무생물 주어구문 모두 두 범주 중 정답률이 가장 낮았다. 오답의 유형으로는 무표 문항의 경우 'lay'로 나타나, 학생들은 'lie'와 'lay'의 차이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유표문항의 경우 'put'이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책이) 놓여있다'로 표현되어 'put'으로 혼동한 것으로 추측된다.

#### 5) go

- 무표문항: 문항63) 나는 매일 학교에 간다.  
I go to school everyday. (정답률 94.7%)
- 유표문항: 문항49) 이 산길은 그 마을로 통한다.  
This mountain road goes to the village. (정답률 58.9%)

두 문항 간의 정답률 차이는 35.8%로 무표문항의 'go'는 정답률이 94.74%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표문항인 경우, 즉 무생물주어구문에서는 '~로 이르다/통하다'로 부호화되어 정답률이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았다. 오답으로는 'bring', 'stay' 등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 6) answer

- 무표문항: 문항69) 그는 나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He didn't answer me. (정답률 83.2%)
- 유표문항: 문항51) 그녀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다.  
She answered her phone quickly. (정답률 28.4%)

두 문항 간의 정답률 차이는 54.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swer’이 ‘대답하다’의 의미로 사람이 목적어로 오는 문장에서는 정답률이 높았으나 ‘<전화를> 받다’의 의미로 무생물이 목적어로 오는 문장에서는 정답을 잘 찾지 못하였다.

### 7) stand

- 무표문항: 문항77) 그녀는 내 책상 옆에 서있었다.

*She was **standing** beside my desk. (정답률 87.4%)*

- 유표문항: 문항53) 그 교회는 언덕 위에 위치해있다.

*The church **stands** on the hill. (정답률 36.8%)*

‘stand’의 두 문항 간의 정답률 차이는 50.6%로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사람주어와 쓰일 때의 ‘stand’는 ‘서(있)다’로 부호화되지만 무생물주어구문에서는 ‘위치하다’로 부호화된다. 그러나 주어의 유생성에 따라 정답률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보아 학생들이 유생성부호화 차이에 대해 내재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답으로는 ‘stay’가 가장 많았다.

### 8) read

- 무표문항: 문항55) 그녀는 성경책을 읽고 있다.

*She is **reading** the Bible. (정답률 96.8%)*

- 유표문항: 문항80) 그녀는 그를 책처럼 훑어보았다.

*She **read** him like a book. (정답률 12.6%)*

‘read’의 경우는 두 문항 간의 정답률 차이는 86.3%로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들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read’는 무생물목적어와 쓰일 경우 ‘읽다’가 되지만 사람 목적어와 쓰이면 ‘훑어보다’로 표현된다. ‘read’는 무표문항

에 비해 유표문항의 정답률이 현저히 낮았고, 오답으로는 ‘watch’, ‘see’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 9) tell

- 무표문항: 문항57) 뭘 해야 할지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해 주실 것이다.

*The teacher will **tell** us what to do. (정답률 89.5%)*

- 유표문항: 문항65) 이 표지판에는 New York으로 가는 길이 표시되어있다.

*The signpost **tells** the way to New York. (정답률 10.5%)*

‘tell’ 역시 두 문항 간의 정답률 차이가 79.0%로 아주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ell’이 무생물주어구문에서 쓰이는 경우 ‘나타내다’, ‘표시하다’ 등의 우리말로 부호화될 수 있는데, 위의 유표문항에서는 ‘표시되어있다’라고 제시되어서인지 대다수의 학생들이 오답으로 수동태인 ‘is signed’를 선택하여 우리말의 표현에 따라 학습자들의 영어 어휘선택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이 문항은 정답률이 아주 낮아 학생들이 이러한 구문에는 그다지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10) run

- 무표문항: 문항58) Antonio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달렸다.

*Antonio **ran** to meet her. (정답률 91.6%)*

- 유표문항: 문항67) 눈물이 그녀의 뺨에 흘러내리고 있었다.

*Tears were **running** down her cheek. (정답률 35.8%)*

이 두 문항 간의 정답률 차이는 55.8%로 역시 크게 나타났다. ‘run’이 ‘흐르다’의 의미로 무생물주어구문에서 쓰이는 문항은 ‘달리다’의 의미로 쓰이는 문항에 비해 정답률이 상당히 낮았다. ‘run’ 또한 주어의 유생성에 따라

달리 부호화되는 것에 학생들이 아직 익숙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유생성 동일 부호화 문항, 상이부호화 문항들의 전체 결과 분석 및 형용사 관련 문항, 동사 관련 문항들의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 그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논의해 보았다. 유생성 동일부호화 문항과 상이부호화 문항의 두 문항 집단 간의 결과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유표문항과 비유표문항 집단 간의 결과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학생들이 영어와 한국어 간에 유생성에 의해 달리 표현되는 어휘들에 대한 연결어휘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V. 결 론

지금까지 영어와 한국어 간의 유생성부호화 차이가 학생들의 영어 연어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특히 형용사와 동사의 통사적 계층의 다양한 문항들을 이용한 실험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결론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에서는 거의 부호화되지 않는 유생성의 차이가 한국어에서는 부호화됨으로 인해, 우리나라 영어학습자들은 어휘 학습 시에 두 언어 간 일대일로 대응되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 어휘인 경우, 의미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미적으로 한국어와 일대일 대응되는 어휘들에 대한 정답률(비유표문항 평균 정답률 80.2%)은 유생성에 관계없이 높은 데 비해, 유생성에 의해 한국어로 달리 부호화되는 어휘들, 즉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들 중 유표문항에 대한 정답률(평균정답률 42.9%)은 상대적으로 아주 낮았다. 두 문항 집단 간의 정답률이 거의 배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우리나라 영어학습자들은 영어에서는 유생성에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 동일한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듯하다.

둘째, 형용사와 동사에 대해 별도로 문항 정답률을 살펴본 결과, 형용사의 비유표문항 평균정답률 77.9%, 유표문항 평균정답률 48.0%, 동사 비유표문항 평균정답률 82.1%, 유표문항 평균정답률 37.8%로 나타나 품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유표문항의 정답률이 형용사와 동사 모두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 중 무표문항과 유표문항간의 정답률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어휘들을 살펴보자. 형용사 중에서 두 문항 간 정

답률 차이가 50% 이상이었던 어휘는 tall(70.6%), busy(63.2%), young(51.5%)으로 나타났다. 동사 중에서 50% 이상의 차이를 보였던 어휘 들로는 read(86.3%), tell(79.0%), run(55.8%), answer(54.8%), stand(50.6%)로 나타났다.

넷째, 우리나라 영어학습자에게 나타난 유표문항의 오답유형 중 의미 있는 것을 살펴보자. 'tall'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키가 큰'이라는 의미는 잘 알고 있지만(정답률 85.3%), '(건물이) 높은'의 의미로 쓰일 때의 'tall'은 정답률이 14.7%에 불과했다. 이 문항의 오답을 'high'라고 답한 학생이 전체 95명 중 75명(78.9%)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아마도 'tall'의 의미 학습 시 주로 사람주어가 쓰이는 문맥만 제공되었을 뿐, 학생들이 다양한 예문을 접하지 못했던 것 같다. 'tell'과 관련된 두 문항 역시 정답률 차이가 컸고 '말하다'의 의미일 때는 정답률(89.5%)이 아주 높았으나, '~라고 표시되어있다'라고 부호화되는 무생물주어구문일 때는 정답률(10.5%)이 아주 낮았고 오답 역시 한국어 구문 구조로 인해 'is signed'라는 수동태가 가장 많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영어학습자들은 유생성 부호화 차이로 인해 영어와 한국어로 다르게 표현되는 어휘들에 대해 아직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유생성 상이부호화 문항의 실험결과에서 보듯이 같은 영어 어휘라도 유생성에 따라 한국어로 다르게 부호화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영어 어휘를 선택하는 연어 능력이 아주 낮다는 것이다. 이렇듯 유생성의 부호화 차이가 우리나라 학생들의 영어 연어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관찰되었고 본 연구결과가 학생들의 어휘학습 시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김낙복. 2005. 영어 연어의 고찰과 교수 방법에 관한 연구.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2(2), 141-165.
- 김은일. 1998. 영어구사력 향상을 위한 한·영 구조에 나타난 유생성차이에 관한 비교연구. 『영어교육연구』 9, 145-164.
- 김은일. 2000. 유생성의 문법. 『현대문법연구』 20, 71-96.
- 김익환. 2007. 연어를 이용한 영어어휘 교수방법. 『영어교육연구』 34, 7-31.
- 김진해. 1999. 연어(collocation)의 의미 관계에 대하여. 『한국어의미학』 4, 239 -279.
- 동아프라임 영한사전. 2005. 서울: 두산동아.
- 이화자. 1996. 중·고등학생의 영어 어휘력 신장을 위한 효율적인 교수방법. 『영어교육』 51(2), 77-105.
- 정연창·염지민·장세은. 2006. 코퍼스에 기반한 한국 중학생의 영어 유의어 연어능력에 관한 연구. 『새한영문학회』 48(4), 247-272.
- 정연창·서러임·김은일. 2007. 한국 대학생의 영어 ‘동사+명사’ 연어 능력에 관한 코퍼스 기반 연구. 『현대문법연구』 49, 1-30.
- YBM 시사 엘리트 영한사전. 2005. 서울: YBM 시사영어사.
- Collins Cou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2003. Glasgow: HarperCollins Publishers.
- Comrie, B. 1989.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Second E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roft, W. 1990. *Typology and Univers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use, D. A. 1973. Some Thoughts On Agentivity. *Journal of Linguistics* 9, 11-23.
- Cruse, D. A. 1986. *Lexical Seman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llis, N. C. 1997. Vocabulary Acquisition: Word Structures, Collocation, Word-class, and Meaning. In Schmitt, N. & M. McCarthy. (eds.) *Vocabulary: Description, Acquisition and Pedag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22-139.
- Firth, J. R. 1957. Modes of Meaning. In Firth, J. R. (ed.) *Paper in Linguistics, 1934-1951*.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Givón, T. 1984. *Syntax: A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 Volume 1. Amsterdam: John Benjamins.
- Givón, T. 1993. *English Grammar: A Function-based Introduc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 Givón, T. 2002. *English Grammar: A Function-Based Introduction*. (김은일, 박기성, 채영희(역). 2002. 『기능영문법』 I, II. 서울: 박이정.)
- Halliday, M. A. K. 1966. Lexis as a Linguistic Level. In Brazel, C. E., J. C. Catford, M. A. K. Halliday & R. H. Robins (eds.) *In Memory of J. R. Firth*. London: Longman.
- Heine, B., U. Claudi, & F. Hünnemeyer. 1991. *Grammaticalization: A Conceptual Framework*.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ill, J. 2000, Revising Priorities: From Grammatical Failure To Collocational Success. In Lewis, M. (ed.) *Teaching Collocation:*

- Further Developments in The Lexical Approach*, London: Language Teaching 47-69.
- Howard, D., W. Best, C. Bruce, & C. Gatehouse. 1995. Operative and Animacy Effects in Aphasic Naming. *European Journal of Disorders of Communication* 30(3), 286-302.
- Jackson, H. 1988. *Word and Their Meaning*. London: Longman.
- Janda, L. 1996. Figure, Ground, and Animacy in Slavic Declension. *Slavic and East European Journal* 40(20), 325-355.
- Lempert, H. 1989. Animacy Constraints On Preschool Children's Acquisition of Syntax. *Child Development* 60(1), 237-245.
- Lewis, M. 1997. Implementing The Lexical Approach: *Putting Theory into Practice*. London: Language Teaching.
- McCarthy, M. 1990. *Vocabul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almer, F. R. 1981. *Seman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uline-Dubois, D., A. Lepage, & D. Ferland. 1996. Infants' Concept of Animacy. *Cognitive Development* 11(1), 19-36.
- Schlesinger, I. M. 1995. *Cognitive Space and Linguistic Case: Semantic and Syntactic Categories in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nclair, J. M. 1991. *Corpus, Concordance, Collo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Van Oosten, J. 1985. *The Nature of Subjects, Topics and Agents: A Cognitive Explanation*.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 Willis, D. 1990. *The Lexical Syllabus: A New Approach To Language Teaching*. London: Collins Cobuild.

Yamamoto, M. 1999. *Animacy and Reference (Studies in Language Companion Series 46)*. Amsterdam: John Benjamins.



## < 부록: 실험용 문제지 >

_____ 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_____ 번 이름 _____
---

\*\*\* 이 시험은 학교 성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다음의 우리말에 **가장 적합한** 영어 단어를 아래 보기에서 하나 선택하여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단, 같은 답이 여러 문제에 사용될 수 있음)

### < 문제 1~20 >

_____ 보 기 _____ beautiful, big, broad, clean, clear, cold, cool, dead, early, fair, famous, fine, fresh, greater, hurry, light, named, passed, power, quick, right, slight, soft, soon, strong, ugly, weak, weight
---

1. 그의 손은 씻어서 **깨끗했다**.  
His hands were \_\_\_\_\_ because he washed them.
2. 강철은 그 과정이 끝나면 **강해진다**.  
The steel becomes \_\_\_\_\_ after the process is done.
3. 그 차는 우리 차고에 넣기에는 너무 **컸다**.  
His car was too \_\_\_\_\_ for our garage.
4. 이 마을은 경치로 **유명하다**.  
This town is \_\_\_\_\_ for scenery.
5. Charlie는 문제를 찾아내는 데 **빠르다**.  
Charlie is \_\_\_\_\_ to find problems.

< 문제 1~20 >

보 기

beautiful, big, broad, clean, clear, cold, cool, dead, early, fair, famous, fine, fresh, greater, hurry, light, named, passed, power, quick, right, slight, soft, soon, strong, ugly, weak, weight

6. 그의 삼촌은 죽었지만 그의 숙모는 여전히 여기 산다.

His uncle is \_\_\_\_\_, but his aunt still lives here.

7. 그는 그것을 들기에는 너무 약해 보였다.

He looked too \_\_\_\_\_ to pick it up.

8. 운동장에 있는 그 축구선수는 아주 크지만 순진한 사람이다.

The football player on the ground is very \_\_\_\_\_ but innocent.

9. 그녀는 공기처럼 가벼웠다.

She was as \_\_\_\_\_ as air.

10. 그 호텔은 아직 인기가 없었지만 호텔의 정원은 정말 아름다웠다.

The hotel was not popular yet, but its garden was so \_\_\_\_\_.

11. 그녀의 아버지는 병에 걸리기 전에는 강하고 활기 넘치는 분이였다.

Her father was \_\_\_\_\_ and energetic before he got sick.

12. 나는 배고프고, 출고, 잘 곳이 없다.

I'm hungry, I'm \_\_\_\_\_, and I have nowhere to sleep.

13. 그는 발명가로 유명해졌다.

He became \_\_\_\_\_ as an inventor.

14. 그것의 움직임은 매우 빨랐다.

Its movement was very \_\_\_\_\_.

15. 갈색 눈을 가진 그 소녀는 매우 아름다웠다.

The girl with brown eyes was very \_\_\_\_\_.

16. 그 대통령은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The president is \_\_\_\_\_ and honest.

< 문제 1~20 >

보 기

beautiful, big, broad, clean, clear, cold, cool, dead, early, fair, famous, fine, fresh, greater, hurry, light, named, passed, power, quick, right, slight, soft, soon, strong, ugly, weak, weight

17. 그 신발은 가볍고 편하다.

The shoes are \_\_\_\_\_ and comfortable.

18. 그 유리컵은 약해서 쉽게 깨질 지도 모른다.

The glass is so \_\_\_\_\_ that it may break easily.

19. 1998년 겨울은 지독히 추웠다.

The winter of 1998 was terribly \_\_\_\_\_.

20. 전화가 죽었다.

The line is \_\_\_\_\_.

< 문제 21~40 >

보 기

age, bright, busy, call, cheap, dry, filled, full, free, great, heavy, high, hurry, large, lazy, lighting, little, low, narrow, old, short, slight, swollen, tall, thick, thin, weight, young, zero

21. 배가 부르면 그만 먹어라.

Stop eating when you're \_\_\_\_\_.

22. 그 시장은 항상 사람들로 붐빈다.

The market is always \_\_\_\_\_ with people.

23. 저쪽에 있는 학생은 정말 키가 작다.

The student over there is very \_\_\_\_\_.

24. 거실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아주 나이가 많다.

The people in the livingroom are very \_\_\_\_\_.

< 문제 21~40 >

보 기

age, bright, busy, call, cheap, dry, filled, full, free, great, heavy, high, hurry, large, lazy, lighting, little, low, narrow, old, short, slight, swollen, tall, thick, thin, weight, young, zero

25. 새로운 우리 선생님은 아주 말랐지만 유쾌하시다.

Our new teacher is very \_\_\_\_\_ but cheerful.

26. 그녀가 결혼했을 때 그녀는 그렇게 어리지 않았다.

She was not so \_\_\_\_\_ when she got married.

27. 그 소년은 아주 키가 크고 잘생겼다.

The boy is very \_\_\_\_\_ and handsome.

28. 상자 안에 있는 수박은 정말 무겁다.

The watermelon in the box is really \_\_\_\_\_.

29. Jenny는 거기 가기에는 너무 바쁘다.

Jenny is too \_\_\_\_\_ to go there.

30. 그 개의 꼬리는 짧다.

The dog's tail is \_\_\_\_\_.

31. 그 식당에서의 저녁은 공짜였다.

The dinner in the restaurant was \_\_\_\_\_.

32. 저 책은 고등학생들이 보기에는 너무 얇아 보인다.

That book looks too \_\_\_\_\_ for high school students.

33. 그 방은 만화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The room was \_\_\_\_\_ of comic books.

34. 그 건물은 아주 높다.

The building is very \_\_\_\_\_.

35. 저 흰색 차는 꽤 넓었다.

That white car is quite \_\_\_\_\_.

< 문제 21 ~ 40 >

보 기

age, bright, busy, call, cheap, dry, filled, full, free, great, heavy, high, hurry, large, lazy, lighting, little, low, narrow, old, short, slight, swollen, tall, thick, thin, weight, young, zero

36. 나는 점심시간에는 항상 자유롭다.

I'm always \_\_\_\_\_ at lunch time.

37. Susan은 아주 영리하고 예의바르다.

Susan is very \_\_\_\_\_ and polite.

38. 그는 너무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 저울을 사용할 수 없다.

He cannot use the scale because he is too \_\_\_\_\_.

39. 그 교실은 아주 밝고 따뜻했다.

The classroom was very \_\_\_\_\_ and warm.

40. 그 당시에 그 나라는 오래되지 않은 신생 국가였다.

The country was \_\_\_\_\_ at that time.

※다음의 우리말에 가장 적합한 단어를 골라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문제 41~80)

41. 나는 내일 동생을 동물원에 데리고 갈 것이다.

I will \_\_\_\_\_ my brother to the zoo tomorrow.

- ① come      ② find      ③ take      ④ go

42. 그는 음식과 옷가지들을 희생자들에게 보냈다.

He \_\_\_\_\_ food and clothes to the victims.

- ① sent      ② asked      ③ moved      ④ helped

43. 우리는 사과외 편지를 받았다.

We \_\_\_\_\_ a letter of apology.

- ① accepted      ② received      ③ won      ④ caught

44. 그는 그 할머니를 이해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He nodded because he \_\_\_\_\_ the old lady.

- ① understood    ② knew    ③ saw    ④ kept

45. 꽃을 만지지 마시오.

Don't \_\_\_\_\_ the flowers.

- ① handle    ② touch    ③ reach    ④ push

46. 그녀의 아버지는 심장마비가 온 후 바다로 떨어졌다.

Her father \_\_\_\_\_ into the sea after a heart attack.

- ① went    ② came    ③ fell    ④ lost

47. 풀밭에 누워 보지 않을래?

Why don't you \_\_\_\_\_ down on the grass?

- ① lay    ② sleep    ③ put    ④ lie

48. 여러분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I hope you will \_\_\_\_\_ to me.

- ① listen    ② attend    ③ like    ④ hear

49. 이 산길을 그 마을로 통한다.

This mountain road \_\_\_\_\_ to the village.

- ① brings    ② goes    ③ understands    ④ stays

50. 그녀는 그의 도움을 원했으나 그는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She needed his help, but he didn't want to \_\_\_\_\_.

- ① give    ② send    ③ go    ④ move

51. 그녀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다.

She \_\_\_\_\_ her phone quickly.

- ① answered    ② hung up    ③ had    ④ said

52. 그 군인은 나라를 위해 죽었다.

The soldier \_\_\_\_\_ for his country.

- ① passed      ② killed      ③ went      ④ died

53. 그 교회는 언덕 위에 위치해 있다.

The church \_\_\_\_\_ on the hill.

- ① puts      ② stays      ③ stands      ④ builds

54. 그는 문을 세게 발로 찼다.

He \_\_\_\_\_ the door hard.

- ① kicked      ② hit      ③ stroke      ④ knocked

55. 그녀는 성경책을 읽고 있다.

She is \_\_\_\_\_ the Bible.

- ① seeing      ② watching      ③ touching      ④ reading

56. 그 식물은 자라서 곧 열매를 맺을 것이다.

The plant will \_\_\_\_\_ and bear fruit soon.

- ① build      ② grow      ③ rise      ④ become

57. 뭘 해야 할 지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해 주실 것이다.

The teacher will \_\_\_\_\_ us what to do.

- ① lie      ② words      ③ give      ④ tell

58. Antonio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달렸다.

Antonio \_\_\_\_\_ to meet her.

- ① ran      ② walked      ③ leaped      ④ jumped

59. 어떤 경찰관이 그를 위험에서 구해 주었다.

A policeman \_\_\_\_\_ him from danger.

- ① gave      ② attended      ③ saved      ④ lived

60. 이 기계는 수리가 필요하다.

This machine \_\_\_\_\_ repair.

- ① begs            ② checks            ③ agrees            ④ needs

61. 그 책은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다.

The book \_\_\_\_\_ on my desk.

- ① lies            ② is lied            ③ is lay            ④ put

62. 그는 그녀의 감정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다.

He didn't \_\_\_\_\_ her feeling at all.

- ① have            ② believe            ③ understand            ④ study

63. 나는 매일 학교에 간다.

I \_\_\_\_\_ to school everyday.

- ① go            ② run            ③ come            ④ pass

64.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The train began to \_\_\_\_\_.

- ① move            ② change            ③ remove            ④ drive

65. 이 표지판에는 New York으로 가는 길이 표시되어 있다.

The signpost \_\_\_\_\_ the way to New York.

- ① is signed            ② is told            ③ tells            ④ makes

66. 타조는 사람을 발로 차서 죽게 할 수 있다.

An ostrich can \_\_\_\_\_ a man to death.

- ① strike            ② knock            ③ kick            ④ hit

67. 눈물이 그녀의 뺨에 흘러내리고 있었다.

Tears were \_\_\_\_\_ down her cheek.

- ① passing            ② running            ③ jumping            ④ throwing

68. 그 소년은 자라서 멋진 신사가 될 것이다.

The boy will \_\_\_\_\_ to be a fascinating gentleman.

- ① develop      ② build      ③ rise      ④ grow

69. 그는 나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He didn't \_\_\_\_\_ me.

- ① question      ② answer      ③ back      ④ say

70. 그 나무들은 지난 겨울에 다 죽었다.

The trees all \_\_\_\_\_ last winter.

- ① fell      ② passed      ③ died      ④ went

71. 너의 치마가 페인트에 닿는다.

Your skirt is \_\_\_\_\_ the paint.

- ① touching      ② arriving      ③ going      ④ meeting

72. 그 장군은 나라를 큰 위기에서 구했다.

The general \_\_\_\_\_ the nation in a great crisis.

- ① lived      ② saved      ③ begged      ④ gathered

73. Mark는 종종 공부를 하기 위해 Jenny의 집에 책을 가지고 간다.

Mark often \_\_\_\_\_ his books to Jenny's house to study.

- ① comes      ② takes      ③ goes      ④ has

74. 내 딸은 그 충격적인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My daughter didn't \_\_\_\_\_ to the shocking news.

- ① hear      ② listen      ③ like      ④ attend

75. 왕은 다시 손님들을 맞이했다.

The king \_\_\_\_\_ the guests again.

- ① hit      ② accepted      ③ sent      ④ received

76. 폭탄이 시내에 떨어졌다.

Bombs \_\_\_\_\_ in the town

- ① went            ② fell            ③ lost            ④ came

77. 그녀는 내 책상 옆에 서 있었다.

She was \_\_\_\_\_ beside my desk.

- ① standing      ② sitting      ③ rising      ④ arising

78. 그의 부모는 그를 기숙학교에 보냈다.

His parents \_\_\_\_\_ him to a boarding school.

- ① went            ② moved            ③ delivered            ④ sent

79. 그녀는 새 집을 위한 새 커튼이 필요했다.

She \_\_\_\_\_ new curtain for her new house.

- ① begged      ② checked      ③ needed      ④ asked

80. 그녀는 그를 책처럼 훑어보았다.

She \_\_\_\_\_ him like a book.

- ① watched      ② saw            ③ read            ④ touched

- 수 고 하 셧 습 니 다 !!! -